朝鮮日報 夕刊 十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南京攻防의大激戰展開!

紫金山의天嶮占領코 太平門으로肉迫 砲兵隊光華門爆破

【南京郊外大校塲에서 十日同盟特派員發】 脇坂、伊佐、富士井、人見各部隊는 目下(十日午前九時現在) 南京城內敵과 激烈한戰鬪를 交하고잇서 砲聲은 殷殷히 凄壯을 極하엿다

【麒麟門서 九日同盟特派員發】 大野、助川各部隊는 九日夜 月明을 利하야 夜襲으로써 紫金山의 天險을 占領하고 同山의 背後를 迂回하야 東北方으로부터 平門으로 肉迫하고잇다

【高橋門에서十日同盟特派員發】 敵의猛烈한 抵抗을排하며 南京東側의 城壁에 當到한 脇坂、伊佐、富士井의 各部隊는 芹澤砲兵部隊의 掩護砲擊下에 昨九日夜來 頑强히 抵抗하는 敵과 交戰中이오 城壁으로부터 射出하는 十字火를 冒하면서 奮戰하는 野中工兵部隊는 目下 光華門을 爆破中으로 銃砲聲、爆音은 今朝來 南京城을 震撼시키고잇다

【麒麟門에서十日發同盟】 大野、助川의 各部隊는 紫金山을 占領하는 同時로 一部隊는 岔路口으로부터 蔣王廟를 經하야 中央軍官學校의 背後에 通하는 太平門으로 向하야 단숨에 攻擊態勢를 整備하엿다

城外到處에 日章旗林立

【上海十日發同盟】 十日早朝 南京城은 完全히 我包圍下에 陷入하야 紫金山、方山、牛首山、靑龍山等 城門周圍의 要塞의 諸山頂에는 朝霧中에 日章旗가 翩翩히날러 南京城을 壓하고잇다

【上海十日發同盟】 南京城四圍의 山岳要塞를 完全히 占領한 我南京包圍軍은 손에든 銃끄테 日丸旗를 날리며 總攻擊令이 느다는듯이 決意의 비출보이여 城內를 睥睨하고잇다 我飛行隊의 偵察에 依하면 南京城外一帶는 山岳이라던지 平地隘路라던지 할것업시 到處에 日章旗에 파무첫다

敵十萬完全包圍 首都運命二時後로迫到

【上海十日發同盟】 外人方面의 情報에 依하면 南京衛戍司令 唐生智는 九日午後二時 各國大使舘에 對하야 殘留外人의 卽時避難、撤退를 要求하고 同五時에 至하자 下關으로 通하는 城門을 굿게 閉鎖하고 城內城外를 連絡하는 電信電話를 一切斷切하엿다 어리하야 城內 十萬의 敵은 完全히 籠城狀態에 陷入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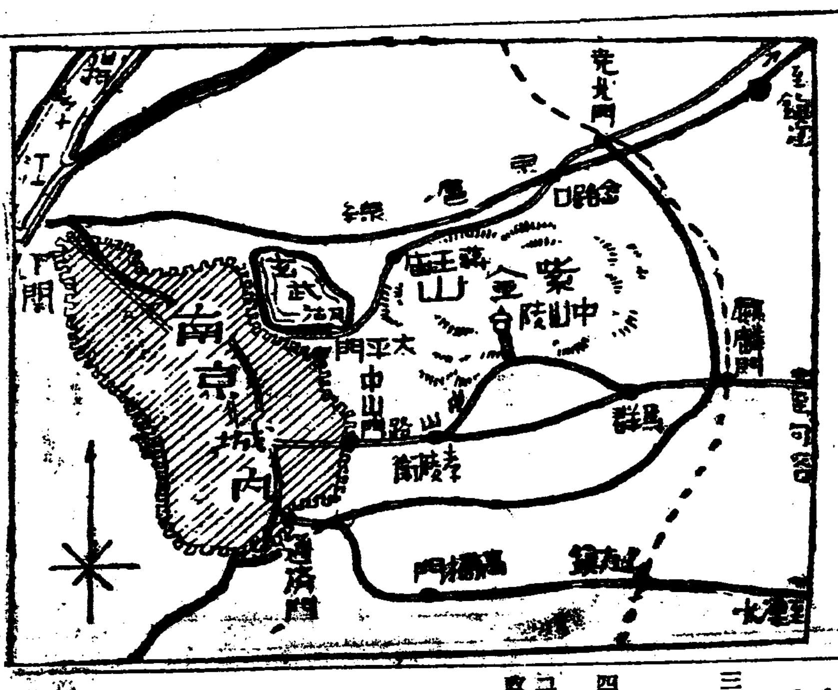
【上海十日發同盟至急報】 南京城 包圍의 態勢를 完了한 我各部隊는 總攻擊의 命令一下 一齊히 城內에 殺到하려고 하고잇서 南京城의 運命도 二時間後에 切迫케되엿다

【南京戰線에서 十日 同盟特派員發】 南京城外 大校塲飛行塲을 占領한 脇坂、伊佐、富士井、人見各部隊는 九日夜 東南方으로부터 光華、通濟의 城門에 肉迫하야 光華門에서는 我軍의 進擊을 阻止하려는 敵의 戰車 一臺를 拿捕하엿다 또 東方紫金山을 攻擊中인 大野、助川、片桐 各部隊는 同夜 紫金山을 占領하고 同山의 背後에 迂回하야 太平門에 肉迫하엿다 또 南方으로부터 襲擊中인 細川、竹山、千葉、山田의 諸部隊는 城壁에 接近하야 바야흐로 南京은 三方으로부터 包圍되여 袋中之鼠로되어 겨우 長江方面의 水路에 血路를 남길뿐으로되엿다

最後抵抗戰에 女子軍까지出動

【紐育九日發同盟】 U·P漢口電報에依하면 漢口支那當局은 日本軍에 最後까지 抵抗을 하게 爲하야 可笑롭게도 如左히 述하엿다한다

「女子軍」을내보내기로 決定하고 九日U·P特派員에 對하야 女子軍五百名이 一兩日中에 雲南으로부터 漢口에 到着하게되엿다 그들은 모두軍事敎練을바덧스므로 軍服을 着用하고 小銃을가지고잇서 漢口에서 編隊한後 北東으로向하야 進發할豫定이다



板橋鎭도占據

【東京〇〇에서九日同盟特派員發】 左翼으로부터 南京에 肉迫한 [illegible]部隊는 九日午前九時半에 南京、蕪湖間의 [illegible] 板橋鎭을 占領하고 [illegible] 完全히遮斷하엿다

時事解說 國都陷落

一國의 首都는 그國家의 政治的 文化的 軍事的 中心地이요 따라서 그國家의 大動脈이 되는故로 현國家의 內部의 政治機構에 잇서서도 首都를 [illegible]하게되는것이 [illegible] 國際法上의 [illegible] 第一먼저 首都를 攻擊하야[illegible] 아니 支那가 最後의一兵이 남기까지 南京을 死守한다고 [illegible] 明한것은 이를 [illegible]이다。

◇ 首都陷落의例는 古今東西를 通하야 史上에 多數히 發見되는데 十九世紀以後의 重要한것을 例擧하면 나폴레옹一世가 一八〇五年十月에 墺太利首都維也納을、그翌年十月에 프로시아首都伯林을、또그이듬해十月에 葡萄牙의 리스본、그翌年十月에 西班牙의마드리드를 一八〇九年五月에는 墺太利首都를 再次占領하엿스며、一八一四年에 나폴레옹이 莫斯科遠征에 失敗하자 聯合軍은 [illegible]을 結成하고 巴里를 占領하엿고 普佛戰爭에 依하야 프로시아는 一八七一年正月에 巴里를 또陷落시켯다 二十世紀에와서는 只今부터 三十七年前에 支那北京이 列强聯合軍에게 陷落되고 昨年五月에는 에디오피아國首都아디스아베바가 伊國에依하야 今般에는 南京이 我軍에게 陷落되게되엿다。

◇ 近世에이르러 國都陷落의 [illegible]가 [illegible]거니와 決定的[illegible]가 이미大勢가 決定되기前에 [illegible]을 [illegible]하기때문에 首都가 陷落되더라도 [illegible]까지抗戰을 [illegible]하는 境遇가 엿다 [illegible]에게 降服하고 [illegible]和條約을 締結하더라도 結局亡하게될運命에잇는 境遇와 政府首腦는 陷落되엿다하더라도 首都에代身할만한 다른軍事政治의 中心都市가잇서서 이에兵站을 移轉하고 政府의 行動半徑을 擴大시켜 兵站線의 聯絡을 確하게하야 이를 遮斷하고 最後의 勝利를 期하는 長期抗戰을 繼續하는 境遇가 엿다。

敵編隊機襲來

【〇〇基地에서 十日同盟特派員發】 十日 午前十一時半 六機의 敵重爆擊機는 高度三千米를 保持하면서 〇〇基地를 空襲하여왓스나 我高射砲의 威力에 恐怖하고 爆彈一發도 投下치못하고 倉惶히 東方으로 遁走하엿다

南京敵軍首腦部 結局交戰을決意?

【上海十日發同盟】 南京衛戍司令 唐生智는 九日南京市長馬超俊을 爲始하야 軍參謀等을 集合하고 交戰與否의 協議를 行하엿다한다 十日朝來城內의 支那側은益益防備를 强化하고 決死的抵抗을 繼續하고잇는바 此等情勢로 보아支那軍은 籠城을 決意하고 最後의一戰을 交하려는듯하야南京의運命도 마침내 最後의段階에 接近하엿다

投降勸告後도 依然軍事行動

【上海十日發同盟】 外人側情報에 依하면 南京城內의 支那軍은 昨夜來 本側의 投降勸告後에도 依然히 軍事行動을 中止치안코 防禦工作을繼續하고잇다 市街의 길이란길은 모든物件을 利用하야 土囊陣地를 構築하고 城壁의 各門에는 土囊을가득채 우고잇스며 周圍에 [illegible] 兵士자리 石油[illegible] 疾走하며 各處에 放火하야 [illegible] 黑煙은 衝天하야 [illegible]엿다

南京市內外空爆 敗走兵에殲滅的打擊

【南京市外大校塲에서十日同盟特派員發】 我飛行隊는 十日午前八時頃 銀翼을連하고 南京上空에 飛來하야 市內外에 巨彈을퍼부 엇다 地軸을動搖할듯한 敵高射砲의 砲聲이 殷殷하고 爆音은 귀창을뚤으는듯하야 彼我의銃砲聲은十時頃에至하야 益益猛烈하게되엿다

【高橋門十日同盟特派員發】 昨九日夜來의 伊佐、富士井兩部隊의 活躍은 猛烈하야 南京北方으로로부터 總崩潰한敵敗殘兵及紫金山山麓으로부터敗走하여온 敵에 對하야 거의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島谷部隊 敵退路를遮斷

【〇〇에서 九日同盟特派員發】 連日에亘한 我軍의猛擊으로 견듸지못한 敵第百三十八師、第百八十師、第百八十一師의 三個師가 黃河河畔의 柳園口를 經하야 黃河를건너 對岸의 河南省 開封에 逃亡하려는것을안 我島谷部隊의 精銳〇〇機는 九日午前 黃河北岸의 要地인 封邱上空에나타나 完全히 敵의退路를遮斷하고 敗殘兵에 爆擊을集中하야 多大한 效果를엇고 悠悠히 歸還하엿다

東洋文化精髓 保護下에確保

【高橋門에서十日同盟特派員發】 大野、助川、野田、片桐等의各部隊는 九日夜마침내 紫金山을我手中에넣코 中山陵、明孝陵、靈谷寺等東洋文化의精髓를 그保護下에確保하엿다

陷落前의南京 UP通信의報道

【紐育九日發同盟】 UP南京特派員은 陷落直前의 南京城狀態에 對하야 如左히 傳하엿다 南京陷落은 第一報으로 [illegible] 米國大使館員을 [illegible]에 옮겻다 余는 九日午前七時파리號가 碇泊한 米國海軍俱樂部前碼頭에 支那兵이 機關銃及野砲를 設置하고 잇는것을 目擊하엿다 指揮官은 長期抵抗에 自信이 잇는듯하야 決死隊를 組織하고잇다 支那軍은 日本軍에 反擊을 加하야 漢口에로의 街道를 確保하려고 努力하고잇는데 前線의 支那軍隊는 疲勞困憊한 우에 食料가 不足하고 寒氣에 떨고잇다 一方뉴욕타임스紙特派員은 如左히 報道하엿다 余는 南京東方九里의 陣上에서 孤立無援에 陷入한 三百名의 支那兵이 全滅한것을 目擊하엿다 彼等은 廣東軍第百五十四師第百五十六師의 兵이다 疲勞困憊한 廣東軍兵士는 諸者에『日本軍은 最初飛行機로 我等의 位置를 發見하고 機銃掃射를 퍼부어오더니 다음에는 戰車 裝甲車 自動車로써 攻擊하여 왓다 모젤銃 小銃及 少數의 機關銃밧게 못가진 我等은 到底히 對敵할수업섯다』고 呼訴하엿다 下關附近의 新模範村을 爲始하야 建物을닷는대로 燃燒하야 火焰은 衝天하야 凄慘한 光景을 呈하엿다

國府의全機構 崩壞의一途繼續

【上海九日發同盟】 南京落城이 切迫되여 國民政府全機構의 崩壞도 바야흐로 單純히 時間問題로되여 支那는 全國이 泰國의 [illegible]하려하고잇다 卽現在까지의 崩壞過程을보면

一、國民黨의 中樞인 中政會는 名目上 四川省重慶에 移轉되엿스나 委員이 分散하야 會合을할수가업서 事實上解消狀態에잇다

二、行政院은 大本營設置에依하야 어며 그活動의 大部分을 빼앗겨고 現業員이 만흔鐵道部 交通部를除한 其他各部의 各官吏數는 平時의 約一割에 減少하고 生命으로엇든 對外關係의 處理에任할 外交部와 같은것도 戰前의 四百人에對하야 現在漢口에 殘存한者는 四十名未滿이다

三、立法院도 院長、副院長及五委員會委員長五名 計七名만이 漢口에잇서 機能이全然停止되엿다

四、考試院、監察院은 全然有名無實로 存在하게되엿다 그리고 國民黨을 [illegible]하는 政權은 全面的으로 影子를감추게되엿다

當塗縣陷落 時間問題

【灣沚鎭에서十日發同盟】 昨夕蕪湖를占據한 藤田、山田等의 各部隊는 단숨에 北進을繼續하야 當塗에 肉迫하야 當塗縣陷落은 다만 時間問題로되엿다

總攻擊開始!

【上海十日發同盟】 松井最高指揮官의 武士道的見地로부터 禮를다한 勸告文에對하야 唐生智는 非禮하게도 回答期限인 十日正午에至하나 何等回答을 發하지안흘뿐아니라 오히려 今早朝來猛烈한砲火로써 我軍을攻擊應酬하여왓다 我軍은 바야흐로 一擧로 南京城을 攻略하고저 全軍進擊의 間一髮의態勢를 取하고잇다

【十日南京發同盟電】 十日午後一時半 我軍은 南京城을 攻略하게 爲하야 總攻擊을 開始하엿다

伊聯盟脫退決意

【쥬네브九日發同盟】 하바스通信이 傳하는바에依하면 伊國政府는 國際聯盟脫退를 決定하엿다한다 一方 國際聯盟所在地인쥬네브의 伊國人側에서도 伊國의 聯盟脫退를 確認하엿다

英外務省表面冷靜

【倫敦九日發同盟】 伊國政府가 마침내 聯盟을脫退할것이라는 報道에對하야 英國外務省側에서는 伊國은 에디오피아戰爭以來 聯盟의有力한[illegible] 聯盟을脫退하더라도 [illegible] 英國에大影響은업다 [illegible] 고表面冷靜을 裝하고잇다 그러나 伊國이脫退하면 聯盟은 [illegible] 大戰前의 勢力均衡外交가 復活할것으로 英國은米佛과 民主主義陣營을 强化하야 [illegible] 對抗하게될것이다 [illegible]

伊의聯盟脫退는 外交上當然한歸結 伊消息通의見解

【羅馬九日發同盟】 伊國의 聯盟脫退說에對하야 伊國官邊에서는 一切言明을 避하고잇스나 政界消息通은 伊國의聯盟脫退는 뭇솔리니首相이 昨年十一月一日멜라노及 今年八月二十日 서실리島의 팔레르모市에서行한演說의 論理的歸結로서 當然한것이라고한다 卽

一、뭇首相은 밀라노演說中에서 伊國의 外交政策을 闡明하고 『에디오피아의 殘骸는 過去十六個月間 國際的雰圍氣를汚損하엿다 余는 에디오피아의 死亡을 登記 하라는것을 要求한다』고述하고 또 伊國은 英佛 兩國이 諒解에 達하기를 希望하는데 그는 聯盟의 機構를改善하던지 或은 聯盟을 除外할것을、條件으로 할것을言明하엿다

一、또今夏 팔레르모市에서行한 演說의 結論에서 首相은『余는 三大陸의 文明이 交錯하는 地中海에 接한 諸國에對하야平和의 協力을 하엿다 이[illegible] 何如한運命에도 正面할用意가잇다』고 述하엿는데 地中海의 情勢는 依然緩和되지안코 聯盟은 依然에디오피아不承認의 主義를 繼續하고잇다

聯盟脫退經緯

【羅馬九日發同盟】 팟시스트大評議會가 伊國의 聯盟脫退를 決定할것은 틀림업다고 보이는데 消息通의 觀測으로는 뭇솔리니 首相이 脫退를 決意하게된 動機에 對하야 左와 如히 報道하엿다 日獨兩國은 伊國이 防共協定에 參加하엿스므로 同國에 對한日獨의 對聯盟政策에 合流하라는것을 主張한것이라 [illegible] 時히第三國主로 英國의 反對를 排하고 大陸政策의 强行을決意한 日本은 伊太利에對하야 對聯盟態度를明確히하고 防共의 共通目的으로 向하야 邁進하도록 要望한것이라고 보인다 따라 伊國도 마침내 對英接近을 斷念하고 獨逸과함께 英佛에 對抗하는 新國際機構의 樹立에 努力하거로 될것으로 解釋된다

또 伊國은 最近滿洲國을 承認하엿는데 聯盟國으로서 聯盟이 全然 그存在를否認한 國家를 承認한것은 伊國이 最初일 것이다 今後 이것이 重大問題化하게되는것을 念慮하고 이것도 脫退를 決意하게된 一端의原因으로보인다

伯羅樞軸小國 結局聯盟脫退?

【羅馬九日發同盟】 伊國은 마침내 聯盟과 絕緣하고 에디오피아紛爭以來의 關係를 淸算할것으로보이는데 羅馬政界에서는 伯林、羅馬樞軸의 小國도 結局伊國에 追隨하는것이아닌가고 觀測한다 但이는 [illegible]意味하는것인지 言明을回避하엿다

뭇솔리니首相 팟쇼評議會開催

【羅馬九日發同盟】 뭇솔리니首相은十一日午後十時부터 팟시스트大評議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九日招集狀을 發하엿다 首相은 大評議會의 決定을 卽日베네치아宮발코니에서 國民에게 布告할터인데 팟시스트大評議會가 突然招集된 理由는 羅馬外交界 一部에 伊國의 聯盟脫退說이頻繁히流布되고 엿는데 에디오피아倂合不承認을 固執하는 聯盟에對하야 最後의 絕緣狀을 發하려는것이라고 觀測된다

米無着陸飛行隊 코코스島到着

【산디에고九日發同盟】 八日午前十時二十分산디에고·코코스島間無着陸編隊飛行의米國海軍重爆擊機十四臺는 三千八百粁를翔破하야 九日午前八時四十分全機無事히 파나마 西南方五百五十哩의 코코스島에 到着하엿다

北支新政權樹立 急템포로進展

【北京九日發同盟】 [illegible] 政府는 國民黨政權과 [illegible] 態度를 持續하고잇는데 [illegible] 樹立은 南京陷落이 必至라고 보고 [illegible] 進展하는 形勢에 잇고 南京政府가 沒落한後에는 臨時政府成立이 具體化될것으로 觀測된다 그러데 日本으로서는 事變勃發當初부터 聲明한 바와가티 支那와의 提携를 衷心[illegible]

人事·集會

◀加藤敬三郞氏(朝鮮銀行總裁) 人事次十日來社

八面鋒

◇總攻擊을 압두고 松井指揮官 期限付 降伏을 勸告。

◇降伏치 안홀것은 從來의 態度로 보아 짐작하려니와

◇昨日 四相會議의 結果는 南京陷落이 되드라도 一段、二段으로 長期戰을 敢行하기로決定

◇어려고보면 戰爭은 오래갈것이 豫想。

◇各自 여에 對한 覺悟가 必要。

◇伊太利 聯盟脫退를 決意。

◇聯盟을 脫退하든 말든은 事實上 絕緣狀態에 잇는 伊太利 새삼스러이 決意도 無要。

◇臨時事變關係特別稅를 增率하리라고。

◇時節이 時節이라 그것도 不得已한 事情。

마라손 マラソン王 滋養菓子 一個五錢 各地菓子店에잇소 豊國製菓株式會社
TRADE MARK

東邦旅館 設備最新·場所淸閑· 交通至便·客室廣濶· 京城府觀水町七(公會堂正面側入) 電光③七五三番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弊所製品만으로는一般供給上堪當不能으로 因하야今般專屬製造家를募集함
一、[illegible]
東亞軍手 ゴム引萬年軍手 朝鮮總代理店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店章捺印限 軍手時勢表進呈) (案內書請求次第送呈) 電話本局2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七一番
大阪市川崎町四六 東亞軍手大阪營業所 電話堀川(35)二七三〇番 振替大阪六八一七五番
東亞手袋工場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珊篤尼涅菓子)
무서운蛔虫卵을驅除합시다! 蛔虫은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 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해서 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 其他 各種病의原因이됩니다 特히小兒는 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잘듯는 再印 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식혀서 어무서운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岩崎大海堂
類似品잇스니 再印에注意

特허高價買入 死猪並鴨等買入 生理至急取引店募集 東洋一의鳥獸商屋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二二九〇

殺人結社'白白魔黨' 來十三日送局決定

調書五萬枚意見書千餘枚 送局者男女五十名

檢擧以後三百日 드듸여斷罪의길

지난이월십삼일 부내동대문서 고등계(高等係)에서 검거에착수한 살인결사(殺人結社) 백백교(白白敎)사건은 그동안루차보도한바와가티 무지잔학의 가괴모를살인기록에잇서서 범죄사상에서 일즉히 볼수업슬뿐아니라 장래에도이런 사건이 다시잇스리라고는 상상조차할수업는 이서(人性)에 일대오점을 남긴사건으로 검거에 착수한 이래 삼백일을 마지하는 십삼일에 드듸여사건의 총심이분로 살인기록보지자(殺人記錄保持者)인 문봉조(文奉朝)외 사십구명(녀자가수명잇다)이 오만장에 달하는 사건조서(調書)와 일천장에 갓가운 의견서(意見書)와함께 살인(殺人)、사체유기(死體遺棄)、강간(强姦)、횡령(橫領)、사기(詐欺)、사문서위조(私文書僞造)등 무시히 범죄왕(犯罪王)의"다이틀"을 메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가 추상열일가튼 심판대(審判臺)에 서게되엿다

司直의檢證分만 被殺者三百四名

敎主全龍海以下의無盡罪狀

사건내용의 개요는이러하다 백백교는 조선근세 사상사(思想史)우에 뚜렷한존재인 동학교(東學敎)의 교도인 전정운(全廷芸)이가 명치삼십이삼년경에 창설한 백도교(白道敎)의 분신으로 교주전용해(全龍海)는 죽그의 동생아들로 백도교가 소화오년 금화사건(金化事件)=江原道金化郡에서 檢擧取調하엿슴으로 이러케말한다=뒤에 쇠퇴하게되자 전용수(全龍洙)의 인천교(人天敎)와는달니 문제의 백백교를 창설하야 정감록(鄭堪錄)식예언(豫言)을 가지고 혹세 무민(惑世誣民)하는것을 유일한무기로 평안남북、함경남도 황해도 강원도등각도에서 수천명의교도를 획득하야가지고는 교도리산 정책(離散政策)을써서 가장험한 곳을 파라가지고 백백교의 지상락원(地上樂園)이잇다는 경성으로 오게하야 재산을빼아서 사복을채우고 교도의 처와딸은노유를 불문하고정조를유린하다못해서는 이러케속되는 간부교도로하야금 경기도동두천산곡(東豆川)양평용문산(揚平龍門山)중、강원도세포(洗浦)유곡(幽谷)함남 청학산(靑鶴山)중 등지에다리고 가서 죽여 암장케 하얏스니그 수가 실로 삼백오십여명의 끔직직한 수자에달하며 검사국의 검증(檢證)으로 일일히해부하야 개장(改葬)한것만도 삼백네명에달하는 방대한 살인기록을 남겻스며 교도들로부터 편취(騙取)한 금액은 수십만원에달하는 대규모의 류사종교사건이다

으로 동대문서의 이사건적발이 단서가되여 현대문명을 무시하고아즉도 지긋지긋하게 무지한 민중에게 깁히쩌드러잇는 허다한류사종교 내지미신에 나리칠되는 그영향하는바 실로막대한 것이엿스며 민중게몽(民衆啓蒙)에남긴 의의는 지대한것이엿다

送局者住所氏名 (男廿九人女一人)

平北龍川郡東下面大仁洞三六八 文奉朝(四)(大鑛師)
平南龍岡郡陽谷面南橋里一三一 入金鑛煥方 金珊瑚(五)
平南江西郡水山面京里五五八 郭道宗(五)
平南江西郡赤松面石一里七九 張右淸(五)
京城府樓下町二五〇 宋錫方 朴(五)俊(五)(大師)
京城府孝悌町九九 李敬得(五)(呼命師)
京城府孝花町一九 白玉賢方 白玉奎(五)(敎主사인)
京城府下往十里町二五 張昌燁(五)(大師)
同 張瑞五(五)(敎主實弟)
同 張顯榮(五)
平北江界郡從南面院坪洞 金性鎭方 金西奎(五)(一名李順文 永春使)
同所 金西奎(五)
同二八六 李昌文(五)
同五四九 李鳥治(五)
黃海道谷山郡伊寧面權田里 (五十) 金君玉(五)
黃海道平山郡文武面昌鮮里三二 李春化方 李主隆(五)(化天師)
黃海道信川郡用珍面三里里 鄭三福(五)(女)
同龍門面舊松里 柳商鎬(五)
黃海道安岳郡大遠面上山里一九 朴文觀(五)
同堂田里 金永奎(五)
同 京畿道楊州郡 … 金東(五)
○ 李泰(五) …
咸南 … 白完俊(五)
同 上西面 白耀俊(五)
平北江界郡時中面 … 張恩變(五)
平北龍川郡北中面秀洞 … 張東煥(五)
平北江界郡時中面內滿一八 朴相榮(五)
平北義州郡古寧面大湖洞 李子成(五)

東大門署必死的活動 百餘名을總檢擧

殺屍體檢證出動만二十餘回

邪敎에 致命的鐵槌

지난이월십삼일 부내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구백오십구번지 동교도로 교주전용해의 장인되는 류인봉(柳寅鳳)의 아들 류곤룡(柳崑龍)이가 자기집에서 교주와 국회회견(會見)을한동 생긴감투가 바로 엽집인 동대문서 왕십리주재소(往十里駐在所)에서 마춤주최하고잇든 석곡(錫谷)순사부장에게 알게된것이 전률의 기록인 이사건의 발단이면서로 사건이의외에도 심각잔학한것을인한 당국에서는 동십칠일부로 게재금지를 단행하고 사건동거도경찰부와 긴밀한련락을 취하는동시에 경무국을통하야 전조선경찰총동원으로 교도의 총검거와 무엇보다도 발견되지못한 검거망을 펼쳐한교주 전용해의 체포에 총력을하야 약 한달동안에 간부교도와 이번 중요자들을 주심으로 한남교도 수십여명과 녀자사역의 검거에성공하엿스나 교주엿든 대마진 엄하기만 오십일을 향하여 발사정필을 드듸여 여주된소 자기가져주든 무사무 로 행동원불청산한 자살귀체 한량의대화(大火)를 …

은 전연사건내용의 취조에조찹 충되여 수개월에 공허는바것을 가리지안는 취조와 삼월십일일에 시작되여 전난 섭일월십칠 일로 엇난 다섯도에빼친 이십여차례의 괴살시체검증으로 여 소룡이 끼치는 사건의 전모는 드듸여 백일아래 드러나게된것

歲末狂噪도本格化 街頭의"丁丑晩歌"!

서무러가는 정축년도 아모로 스무날밧게 안남어 눈코를못뜨는가두에서는 금년의 종주곡(終奏曲)이 어지러운박자를울려 세말의 소란한공기가 거리마다넘처흘르고잇다 사적사변에 황군의대승을 기렴 도리다보면 다사한정축년!력 오는먼기고간 막다른어해의 시내가중국행진 보면——

百貨店

누구보담도 이때회한이 제일 서미빠르게 세말대매출 … 이니 세말중요품대매출이니 점두에 동화중대장을하야 연말

印刷業

한창흥안 금년의 연하우편은 전부폐지하다는판이 각의에서까지 대두되엿더니만지 금년벽의 연하우편에서 한몫을볼라고 벼르고잇던 인쇄업자들의 한숨이 여간이아니엿던것이 일반관청에서 깨끗이폐하는 연하우편을 되도록폐하고

映畵街

외국영화의 수입불가능의여러가지 곡절을 겪어두엇스나 영화판에서도 「…」라는 간판을 노리걸고 각영화관이 경쟁적으로 명화를 상영하게되여 이제야 변말때회주가이 시작되엿다

料亭街

비상시국으로 말미암아 한참동안 쓸쓸해 불어가던 요리집도 황군의 대승으로 점점 기운을내는듯하더니 연말 상여금에다가 망년회가 본격적으로 버려저서 흥성한기분에 떠돌고잇다

府內各署

금년은 비상시이라 연말경계에도 이비상시의 색채가가며 되여 지난일일부터 각서에서 적의로 년말경계가 시작되더니 십오일부터는 본격적 특별경계로돌어가게될것으로 이십일 이십오일로 끄러가지고 그경계망을 강화하여 들어갈터인데 그긴장한 품이 철옹성가든감이 엇다

遞信局

연말이제일 바쁜관청이니만큼 법선철도국과 련락하야간선철도의 우편차를 확장하며 시내의 각우편국은 배명증식 림시 증원을 하야 연말준비를마치고 연하우편과 소포에 대한대기의자세를 가지고잇다

專賣局

제일선의 병사에게 "가치도끼"를 정조선물로 보낸 … 로 총동원되여 농춤을 올리켰 파 예정인 백오십만개가 삼백만개를 돌파할모양이다

鐵道局

연시 예년과가티 수송진을 치고 연말연시망기에 대비하야 선만직통열차 신경부산간 일개렬차 봉천부산간 일개렬차 경성부산간 임시렬차를 증발하고 만부선에서도 열이차를증배하기로 결정하엿스며 채희를맛아라고회물용차의 증차로 계획중이다

咸南産業奬勵館 來十五日부터開館

【咸興】함남도산업장려관(商品陳列館)도마침내 십오일부터산업장려관(産業奬勵館)으로 그명칭을곳치고 기능을범위로 대확장하는동시 실습공회당으로 옴기게되엇다 동관에서판의 사업은 물론소재전전람회장 개최 위탁판매시작(試作)서에 산업개량발전에관한 조사사험 연구시설등 그범위가극히 넓은데지흥 만주국이라는 큰시장을 가장접근하게가지고잇는 함남도산업개발에 절대한공헌을 끼칠것으로 기대가크다

酒造組合令을制定 製造販賣統制强化

各業者들을强制加入토록 明年一月부터實施

총독부에서는 전조선 주업자(酒造業者)의 무모한 경쟁방지와 합리적경영을 목적으로 주조조합령(酒造組合令)을 제정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녀래 그범령안을 심의중이든바 일전에 그 심의를 마치고나서 이미법제국으로 돌렷는데 느저도 명년일월부터는 공포실시하게될모양이다 이조합령의내용은 내지의 그것과 근사한것으로 청주소주 조선주등의 업종별에 의하야 각세무서관내를 단위로조합을설치하고 또세무감독국 관내를단위로 련합회를 설치할터이며 경성에는 이들세포단체를 총괄감독하는 중앙회가 설치될터이다 그런데 이조합은 법인단체로 물론총독의 인가를요하며 업자들은강제로 가입시혀서 세금납부、원료구입제조판매의 규격통일 이중앙과 가격의 협정등 주조업자의 전반적 통제기관인데 총독부에서는 세액의 점분의삼 수주세액의의천만원에대하야 약육십만원의 보조를주고자 이미명년도예산에 계상하여 대장성(大藏省)에 돌렷다 현재조선에는 임의의조합으로주조조합이 잇스나 고준재미약하야 한유효과적기관에 못되여잇든중 이번법인단체로 조합이조직되어 반강제적으로 기능을발휘하야 통제를단행하게 된것은 문제만흔 조선양조업계를 위하야비상히주목을끄을게되는것이다

六十萬圓補助 業者利益圖謀

村山稅務課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세무과장(稅務課長) 촌산도웅(村山道雄)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조선의주조조합령은 이미심의중의소됨이나서 법제국으로 돌렷는데 명년일월에는 제령으로 공포실시되리라고생각한다 그내용은 내지의그것과 근사한것으로 세금납부、원료구입 제품판매、가격협정、거래공동시설등 주조업의 통제일통제기관이다 세금기타 향상적시설을장려하는 의미로 세액의약분의일 즉약육십만원을 명년도에 보조하려하고 예산을계상하엿다 그러나 의회에서 파연 이것이무사히 통과될는지 모르겟다 세무서관내에는 조합、세무감독국관내에는 련합회 조합과 련합회는 법적공공단체로 동시에 전부조직될터이나 실시는 딴은 아직 언제실시할는지미정이다

時局座談會參加人員 百五十萬名突破

全朝鮮二千餘駐在所가主催

지나(支那)사변발발이래 총독부에서는 전조선각주재소에 명하야 시국인식을 철저케하고저 각주재소 중심으로 시국인식좌담회를 개최중인바 시국인식좌담회는 지방주민의 시국인식철저에 의하야 비상한 호성적을 보이고잇다 지난월말현재 총독부조사에의하면 각주재소중심으로 개최한 시국인식좌담회 회수는 이만일백삼십오회에 집회인원 일백오십오만 팔천삼백오십육인에달하얏는데 함경북도(咸北)의것은 아직보고가 도착되지안핫다 전조선 이천오백십이개소의 경찰관주재소와 출장소 경찰관의비상한노력과 열성으로 조선민중의 시국인식을 자하고잇다

陳列窓破壞賊

비시령 부내본정서원이 황금정 오세의 로인 김재영(金在榮)씨의 담배가개 진렬장 유리를 깨드리고 담배를 훔치가지고 집으로 도라가다 붓잡히엇는데 그와거 남미창정(南米倉町)약초정(若草町)에서도 담배가개를 정문으로 도적질한사실을 자백하엿다한다

武運長久祈願 庭內에祭壇設置

전라북도 리리읍 고현정(古縣町)에 거주하는 … 씨는 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 자기집 정원에 제단을 설치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잇다한다

北支鐵道各線 따이야平常化

【北京九日發同盟】경수철도국(京綏鐵道局)에서는 경수철에비치워 현재 북대(台)대동(大同)간에 이일부터 하는"다이야"를변경하야 오는 십오일부터 사변전과가티 십삼직까지"다이야"에의한 적루 해해 수송교통은 사변발생이래 러차를 운전하거로 결정하얏다 그리하야 장가구(張家口)대동방면의 교통이 회복되엿다

緣故農民의代表者 入京陳情코歸安

總督府의善處만待望

【平壤】안주군연호면(安州郡燕湖面)청천강상류(淸川江上流)의 하천부지연고자 농민삼천여명의대표 박화진(朴華鎭)외씨는 기보와가티 총독부에가서 면거 요로를면회하고 삼천여농민의 울분사정을 충분히설명하여 리해를어든후 구일오후에 귀안하얏는데 일만오천여석의 정조(正租)를 추수한채 논두렁에싸허두고 총독부관계당국의 시급한해결을 고려하고잇는터이라한다

李鍾燮氏美擧

【錦山】리종섭(李鍾燮)씨는 지난칠월 전남도보청에서 빈민을 구제하야 … 당한 방법으로 즉시분배할방침이라고한다

賞與金一部로 國債를買入하라

各官廳職員에게通牒

총독부에서는 각관청직원의 연말상여금의 일부로써 지나사변국채를 매입케하고저 각관청에 통첩을 발하얏다

平壤의同情週間

【平壤】평양교의단체련합회에서는 기아선상에서 헤매이는 극빈자 삼백오십칠명을 구제하고저 십칠일부터 이십삼일까지 일주간을 동정주간으로 하여 일구이십전이상의동정금을 부내 전국에서 모집하기로되엿다 치위에떨고 굶주린 가련한동포를위하여 일반은동정을 경주해야될것이며 동정금은 부청사회계(府廳社會係)와 평양、선교、대동(平壤、船橋、大同)등세경찰서에서 접수한다고한다

社會敎化資料 팜푸레트發行

총독부사회교육과(社會敎育課)에서 발행하는 사회교화자료제이십일호 「일지사변의근본원인과 내선일체정신함양의급무」라고제목한 「팜푸레트」는 구일에 인쇄가 끗낫스므로 사회교육과에서는 전조선각도지도기관에 약삼천부를 배부하얏다

歸省生徒爲하야 臨時列車配備

京釜、京義、京元、咸鏡、湖南各線에 廿四日夜一齊發車

철도국에서는 동기방학때에 고향으로 도라가는 경성부내각중등학교 남녀생도를위하야 오는이십사일밤에 경부(京釜)경의(京義)경원(京元)함경(咸鏡)각선에 림시렬차를운전하기로 되엿는데 그시간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다

◀경부선 경성발오후아홉시삼십오분=부산착 익일오전열시오십분
◀호남선 경성발오후아홉시삼십오분 목포착 익일오전열시오십분
◀경의선 경성발 오후열시이십분 평양착 익일오전다섯시십분
◀함경선 경성발 오후열시십분 청진착 …
◀경원선 경성발 오후열한시 함흥착 익일오전열시십오분

東亞참기름 開城西本町 東亞製油所

統一機運 分裂된拳鬪界

朝鮮아마추어拳鬪界의 分裂狀態는依然繼續되어 斯界의向上發展에 支障이 잇슴을痛歎하는소리가놉흔 이때에 朝鮮拳鬪協會에서는 全日本아마추어拳鬪聯盟의 承認을밧고 全朝鮮아마拳聯과 協會의 統一을위한 調停役을 梅澤體協主事와 鄭商熙氏가맛기로되여 不日內로 兩便關係者들이會合할터이라는데 明春부터는 明朗한拳鬪界에 名實共히 全朝鮮을 網羅하는組織體를 完成할모양이다

萬米競步는中止

國際陸上競技聯盟으로부터 日本陸上競技聯盟에다 올림픽東京大會競步競技는 五萬米以外에一萬米를 더加入하자는 提議가잇섯는바 日本陸聯總會에서 一萬米競步는 採用치안키로 決定되엿슴으로 지난十日에 이를 山聯本部로 打電하엿다

원스케優勝

今年夏期에 日本에來征하엿든 米國陸上軍의 中距離選手로 活躍한「참스·원스케」選手(위스콘신大學)는 十一月六日 市俄古에서擧行한 로요라大學招待學生三哩八分五의 新記錄競走(크로스·컨추리-)에「이리노어」州立師範大學의「팁스」選手를 七十五碼이나 떠러트리고 十八分十一秒一의 大會新記錄으로 優勝하엿다

運動界人事

◀金正學氏(全朝鮮아마拳鬪協會理事) 府內新町四二〇自宅에서療養中

天氣豫報

槪況 弱한 低氣壓은 滿洲東部와 沿海州에잇스며 大陸高氣壓은 蒙古方面으로부터滿洲로 퍼지게되여 半島의 氣壓配置는 頗不安定하다 南朝鮮은 大體로 晴明하나 地方에 따라서는 小雪이잇다 今朝京城에는 濃霧가잇섯다 日本內地는 흐리기쉽고 地方에따라 小雨가잇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은晴後曇이요 明日은 晴明할터이며 날세가 추어질터이다

昨日最高 三度七
同 最低 零下三度
今朝最低 零度八
今日正午 四度六

쏘는 살과 독

어느 녀름 해변에서 여러사람이 모혀 나는 가서 보니 한사람이 큰 구렁이를 손에 가지고 팔과 목에 감엇는대 그 구렁이는 독사이다 한번 물면 꼭 죽을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슨 약을 하는동이 빼앗이 그 갈너진 혀로 그를 할트되 도모지 상해가 업섯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놀나고이상히 녁이며 그리유를 물으즉 이는 그 혀의 독즙과 살을다 빼여냇음으로 해할수가 업시된이다하엿다

웨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나뇨 이는 쏘는 살이 잇슴이니 사망의 쏘는것은 죄이라 하엿다 만일 그 살만 빼아내면 육체의 본릉외에는 사망에 두려움것이 업슬것이다 그러면 이사망의독을 누가 능히 빼여내겟나뇨 우리 스사로는 할수업슬것이오 다만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야 죄의 살을 제하하섯스니 그가 구속함을 엇은것이다 우리의 죄에서 나 사망아 네 쏘는것이 어대 잇나냐 그의 피로 말매암아 우리가 대인가나 사망아 네 이기는것이 어대 잇나냐 그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사 사망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잡은자 마귀를 멸하섯스니 『예수를 밋는자는 사망의 두려움이 업시 그의 안에서 편히쉬일것이다』

藥治淋特効 藥治淋特効 藥治淋特効

G-U-사이드 遂入荷
지 유

社會病患者에게一大曙光!

弊社가일즉이(治淋劑를一般大衆에게 宣傳販賣치안흔理由)를 擧한 同時에 近日入荷를 豫告한 現代醫學의 最大發見 G-U-사이드는 드듸여 入荷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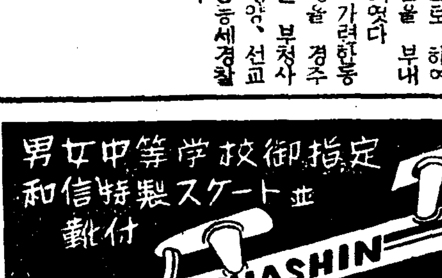
그동안 豫約或은 註文으로써 오래동안 苦待하신 各方面의 諸位에게,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바이며 G-U-사이드는 準備의 完了를 따러서 卽時 發送하엿사오니 널니 照諒하여주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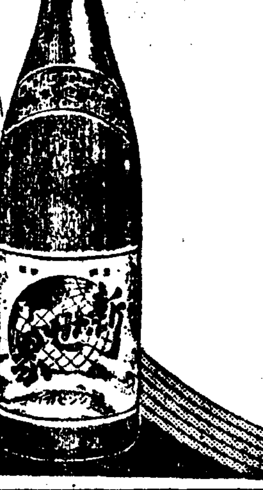
全國有名藥房에서 販賣합니다。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朝光送年號殘部僅少至急히注文하시요

特品醬油原料
モロミ アミノ酸
(商標登錄)
京城府蓮池町七七
日光醸造部

男女中等学校御指定
和信特製スケート 並 靴付

WHASHIN
特価¥6.50
和信運動具部

理研清酒
新世界
景氣가조흔
제수가조흔
健康에조흔
御進物!

大鮮醸造株式會社

古鐵 高價買入
京城府錦町一四七ノ三
永豊社
電話光化門(②)一〇七一

謝罪廣告

本人이貴社의使用權이有한 活命水의商標權(商標法第卅四條)을 侵害하엿슴의非를貴社에對하야深히謝罪하며 今後는絶對로活命水云云의文句를記入한藥品은販賣치아니하겟슴을誓하는同時에 今般貴社가本人에게對하야寬大히處分하여주심은感謝不已하압나니다

昭和十二年十二月八日
馬山府石町
保生堂藥房 主
京城府 … 五番地
株式會社 同和藥房 殿

朝光·女性·少年新年號十五日一齊發賣

猛虎出林의氣勢!
三大雜誌飛躍
沸騰하는人氣는여기總集中
燦!出版文化의金字塔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조광(朝光) 여성(女性) 소년(少年)의 삼대잡지는 욱일승천의 세 날날히 그발행부수의 증가와 아울러 최고권위를 확보 또 확보하고잇거니와 이번 신년호는 더욱 그내용이 호화찬란하야 전례에업는 굉장한 잡지를 꾸며노앗다 조선에 잡지가 생긴지 수십년 그역사가 오래이엇지만 이처럼 훌륭한 내용과 신묘한 편즙으로 세상의 이목을놀래인 잡지가 어데잇든가 일반대중의 취미와 실익을 위한 조광(朝光)을 보라 그리고 여성문화를위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두에서나 읽어 그참된지식을 어들수잇는 여성(女性)을보라 오백만어린이들을 위해 참된선생이되는 소년(少年)을보라 이모—든 잡지가 모—도 조선문화를위한 히생적사업으로 나오는것인건매월 친화된 독자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실것이다 최대의 저렴한 가격과 최대의 난숙된 편즙으로 세상에 나오는 어삼대잡지야말로 조선서는 말할것도업고 전동양적으로보아 조금도 손색이업다『더구나 출판부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은 모—도가 권위잇는것으로이 또한 조선일보출판부의 커—다란 사업에하나이이다

(朝光新年號特價五十錢 女性二十錢 少年十錢)

우렁찬新年의새信號
希望의建設相歷訪
學校와文化團體의新年計畫打診
快!各界盛事에大歡呼!!

해가 밧귀고 날이 새로움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히망과새로운 포부를 가지지아니하면 어니된다。요새 조선사람들은 교육으로 사회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온갖 방면에 우렁찬 진군을하고잇다。우리는 한글의별빗아래 맑게빗나는 히망의술을잡고 명일의 빗난조선을 건설하고저 기운찬 노력을하는것은우리가 가질행복과 명예(名譽)를위하여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다 여기는 조선이 생긴후 처음보는교육계의 가지가지 빗나는건설상(建設相)을소개하엿다。리종만(李鍾萬)씨가 일금일백이십만원을드려서 숭실전문을 인계경영하는 자세한이야기와 고긴종의씨의 여자의학전문학교를 건설하는 씩씩한이야기와 기타룡산고보(龍山高普)안악고보(安岳高普)숙명여전(淑明女專)재녕 명신(載寧明新)경주고보(慶州高普)안주고보(安州高普)등새로되는 여러학교의 자세한 건설상을비롯하여 이외에십여년을두고 조선어문(朝鮮語文)운동을위하여 자자노력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내용이야기와 또는 조선사람으로 반드시 가지지아니하면 아니될『조선어사전』편찬에대한 진섭신상을 소개하엿다。그리고 한사회의 문화를 최면으로 대표하는 영화사업을 두어개에며 고 지속한『조선영화주식회사』(朝鮮映畵株式會社)의 사업내용을 자세히소개한것은 누구나아니볼수업는 조흔기사이다。이외에 일천만 조선여성을 위하야 우렁찬 소리를치고 분연히 일어나서『경성자매원』을 경영하는 여박사 고황경(高凰京)씨의 이야기를 소개한것은 더구나 아니볼수업는 호희관이다 못배우고 아지못하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라치고 기타、위생、가사、재봉등을 가르켜주며 또는 무산빈민들에게 무료로약을주고 진찰을시켜주는 그들의 노픈 리상과 실천력(實踐力)을 소개한것은 경성、자매원의 자랑일뿐아니라 조선여성의 자랑이아니면 아니다。

이외에 또 갈곳업고 의지할곳업는 불상한 고아(孤兒)들을모아 그네들에게 따뜻한 어머니가 되고 즐거운 가정이되여 그들을 고이고이 길너가는『경성고아원작업장』(京城孤兒園作業場)을 소개한것은 새해를 마지하는 이번호에 잇서서 가장 의미깁흔 기사이다 이외에 각방면의 온갖 건설상을소개한것은 본지의 자랑일뿐아니라조선사람의 자랑이아니면 아니다 이기사는 만흔기사중에 더욱히 백화란만하게 꾸며노흔 호화로운 초특기사임을 말하여둔다

女流文人總執筆
現代朝鮮 女流文學集
定價 一圓　送料 十九錢

文壇十五氏執筆
世界傑作 童話集
定價 八十錢　送料 十六錢

豪華한朝光新年號表紙(金熊超氏筆)

朝光新年第四卷第壹號目次

畫報
一、新春마지하옵는朝鮮神宮
一、新年主人公虎公
一、水仙花
一、메리노어·포우엘
一、畫報와모델
一、武器업는騎士
一、스테피피케이블
◇表紙『虎』(八色版옵세트)　金熊超畫
新年새希望의建設相
◇勃興하는敎育界의盛事　成仁基
◇朝鮮語學會의飛躍　一記者
◇朝鮮映畵株式會社　一記者
◇京城姊妹園　一記者
◇孤兒院作業場　一記者
朝鮮歷代詩選　[illegible]
◇白雪賦(隨筆)　金晋燮
◇눈오는날(隨筆)　張德祚
◇踏雪記(隨筆)　李源朝
나와호랑이　權惠奎 林和 李一 金煥泰 高羲東 金秉河 權相老【無順】
戊寅史上高麗太祖　車相瓚
호랑이座談會　申鼎言
百獸王虎家之譜　靑林道士
나의十年計劃　金瑢根·權惠奎 黃義敦 李榮俊 李秉岐 李克魯 李石 金台俊 林和 韓雪野 張文卿 蔡萬植 鄭寅英 金珖燮 金晋燮 田榮澤 辛夕汀 崔鉉培 宋錫夏 安懷南 鄭槿陽 嚴興燮 柳致眞
時事特輯
新春經濟展望　李健赫
經濟制裁는可能한가　金翰容
世界防共戰線의强化　薛賢容
北長老系學校의今後　金承兼
◇모—차르트의生涯와藝術　朴慶浩
◇드뷔씨音樂樣式　任東爀
◇詩人權石州　一聯生
우리學校新年計畫
梨花女專 中央保育 梨花保育 京城保育 中央佛敎 一新女高 高敞高普 五山高普 普成高普 東萊日新 槿花女高 東星商業
名映畵에나타난悲戀九題　李曙鄕
◇체홉의藝術觀　李雲谷
◇老子夫婦의放浪　鄭槿陽
◇生命의自律性　李雲
◇感性과知性　金午星
우리집의花盆
金煥泰 朴致祐 李孝石 鄭

錦上添花의朝光附錄
鄭圃隱六百年紀念誌
四六版一百二十頁의極美本
近來稀有의珍文獻

정포은(鄭圃隱)선생이라면 거리의 아이들까지 모르는이가업다 이와가티 조선력사상에 그이름이 노픈 정포은선생의 탄생륙백년기념일이 닥처온다。음력으로는 십이월 여십여일이오 약력으로는 일월여섯일인 곳 그의 기념일인바 본사출판부에서는 선생의업적과 정신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기념지(記念誌)를 발행하야 조광(朝光)신년호 구독자에게만 무료배부하기로 한다

선생초상화 별고서원 사진
선생의 영각(影閣)사진
영천(永川)의 효자비 사진
개성 선죽교 사진
개성 숭양서원 사진
흥인(興仁)의 선생묘지 사진
묘아페잇는 신도비 사진
묘엽헤잇는 추출서원 사진
선생의 영적
선생의 필적

이러한 희귀한 사진판도 엿숨흘뿐아니라 노픈이의논문은

鄭圃隱과歷史性……洪命憙
鄭圃隱과麗末政界……文一平
鄭圃隱과朝鮮儒學……李丙燾
詩人으로본鄭圃隱……李殷相

이밧게 포은선생략전、일화、년보 서원사적 문집간행사적과 또한 력사가 명사수십명의『나의 鄭圃隱觀』이라는 빗나는글 등 실로 사류관 미장 단행본일백수십페지나되는 의미잇는서적이다。

그러나 여것은 조광 신년호독자에게만 한하야 발행하는것임을 주의해주기바란다。

우리집花盆

사람마다 꼿을 사랑하는것은 노픈 취미다。그러고 그조화하는꼿을 보아 그사람의 리상과 성격을 알수가잇다。각계명사들의 집에는 어떠한 화분이잇고 또는 어떠한 꼿들이 잇는가 그것은 누구나 한번알고시픈 문제일것이다。여기는 일류 예술가를 위시하여 여러명사들의집에잇는 화분과 꼿들을 소개하고 그 향기로운 운치를 소개한것이니 누구나 반드시 보아야할 조흔기사이다。어떤이는 서회를조아하여 어꼿을 정성것 길으고 어떤이는 매화를 조아하여 겨울지위에 간수하며 어떤이는 란초를 조아하여 어것을 자기 자리미테 길으는등 실로 아름답고 자미잇는 엽서로써 가득찻다。신년을 마지하는 호화로운 취미기사이다。

鷺山李殷相著
漢拏山
定價 一圓二十錢　送料 十九錢

名流家庭網羅한
結婚一年生座談會
初年兵의아기자기한報告書
結婚은戀愛의무덤?

인생은 결국혼자는 거러가지 못하는길 그시기의 이르고 느즌잇을지언정 누구나 마참내는 다밟아야 하는 여정이 항은 평범한듯하면서 또한 가장멀리케이든한것인상도십다 과연결혼은 연애의무덤인가? 세상의미혼 청년남녀를위해 여기 신혼의 일년을지낸 결혼생활의 일년급여러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여러깃업는 적라라한 그들의일년생의 보고를들은것이『女性』신년호에 게재되여잇다 여게 참가한분들은——

朱壽元氏(申鉉澤氏夫人)
朴奉愛氏(朴慕準氏夫人)
孫貞順氏(李晶在氏夫人)
金聖哲氏(任貞植氏夫人)
尹恩姬氏(鄭奉愛氏夫人)

일년생들으로는 대담한적라라한 보고들이만라 위기에잇는분들—압으로 결혼생활에 입문할 미혼생여러분들에게 다시업시귀한 참고거리가 만재해잇다

女性新年特大號

特輯詩畫報
元旦　白菊堂　鄭玄雄 畫
장날　盧天命　金奎澤 畫
隨筆
新年頌　金午男　崔根培 畫
눈오는밤의情緖　白信愛
雪夜幻想記　金珖燮
콩트
아들　張德祚
寫眞과洋靴　安懷南
創作
中篇 거리의牧歌　李孝石
短篇 賣笑婦　李善熙
短篇 아버지消息　嚴興燮
短篇 女人의世上　朴慶浩
詩
春正月美文體　鄭芝溶
눈나리는밤　尹泰雄
一、새해主人범公訪問記　R記者
一、호랑이와女性　申鼎言
一、戊寅史上에빗나는女性　車相瓚
一、世界名作解說 앙드레·지—드의『좁은門』　李源朝
一、詩人 毛允淑論　李軒求
一、朝鮮八道結婚禮式巡禮(平安道編)　金晚炯
一、長期戰과家庭經濟　李健赫
一、家庭副業의種類와指導　河祥鏞
一、正初家內遊戲法數種　洪蘭坡
一、男女兒童옷製法　任貞爀
一、젊은안해의危機打開策
◇嫉妬가甚한男便인때　宋今璇
◇異性에게特히多情한男便　吉貞姬
◇性的으로不滿을느낄때　鄭槿陽
◇媤母姉때문에男便의愛情이變할때

紅毛白人과매즌사랑
花燭洞房에꿈조차平和
靜窓에속삭이는國際結婚의夜話
梨專出身의才媛 韓興福孃과 宣敎師 피氏와의 戀愛秘事

어해도 저무러가는 부산한 이때、여성조선의신기록을 본다。

공목게에서 종교게에서 각사회종에서 내놋치못하고 뒤에서 응성거리는 쎄쎄이슈날한 큰사건이 잇스니 대중 그이야기의 꿈자를 들어보건대 언제리조선여성과 미국인남선교사사이에 매저지는 국제적연애의 호화판여라한다。

여기 등장하는 미모의 연人기여성은 사년전 시내리화여자전문학교를나온 재원 한흥복(韓興福)양이며 미국인 선교사란분은 십년전부터 조선에나와 농촌사업을하고잇는 피러쓰(C)목사이다。

그러면 여기국경을 범하며까지 매저지는 사랑의결정의 실마리는 어듸서 시작이되엿스며 결혼하는 오늘을 자저오기까지의 그들의이채찰란한 로맨스의 상쾌한 이야기는 어떠한가? 한양과 피러쓰씨의 자서한 련애비화와맛 아고로의 그들의생활의 설계들도른 진기사가『女性』新年號에 적라하게 실녀젓다。

新年創作篇
短篇小說 森林(崔根培畫)　姜敬愛
長篇小說 鮮血(第二回)(鄭玄雄畫)　方仁根
長篇小說 天下平春(第一回)(金용준畫)　蔡萬植
長篇小說 紫風地帶(終回)(鄭玄雄畫)　咸大勳
[illegible]

隨筆陣의面貌

수필(隨筆)가운데는 철학(哲學)과 인생관이잇다。새해를맛나두고 조선의 산하(山河)에는 백설이분분하여 산이나 들이나 강이며 모다백옷(白服)의 눈으로써 곱게 더퍼노앗다。새해를 마지려는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엿하는 조선의 서기(瑞氣)이려니와 여기는 수필(隨筆)계의 로장인 김진섭(金晋燮)씨를 비롯하여장덕조、리원조씨등의 눈에 대한수필을 실어서 신년벽두에서 눈에대한감상 눈에대한철학 등 가지가지 조흔이야기를 그들의 빗나는 붓으로 그려노앗다。누구나보고 그런나면 문장과 향기러운색채 예취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이외에 정근양(鄭槿陽)씨의 의학수필과『처음』의 예(藝)감동은 더욱이 조흔기사임을 말하여둔다 신년호는 제목마다 옥실옥실자미잇고 유익한 기사뿐이다。

嶄新한女性新年號表紙(鄭玄雄氏畫)

男性鐵蹄에總起立
紅脣抗爭第一聲
안해는男性橫暴에울지말자
新衣新裝『女性』의大氣焰

젊은안해가 남몰래운다 이것은 결혼생활에 잇서 확실히무서운 한위기(危機)가 안일수업다。

번민에 우는세상의 여러젊운 안해들을위해 여기『女性』新年號에 각계남녀인사들을 망라하야 엇은 귀한 타개책 훌늉한 해결을보라。

◇질투가심한 남편을가진안해가 얼마나괴로운지를 아는가? 이것은 말라죽을 무서운 현실이라고도하다。이런 경우에서울고잇는 젊은안해는어찌할것이냐 여기에대한해결책을 宋今璇女史에게서드럿스며 또 여성에게 특히다정스러운남편을 가진안해는 어찌할것인가? 를吉貞姬女史에게서 그타개책을 듯기로햇다。또다른경우 성적(性的)으로 불만을 느끼는안해의괴로움의 해결책을 의학사 鄭槿陽선생이 자서히 일너주엇스며 또 대가족제도인 조선가정에서 제일만히볼수잇는 시어머니와 시누따문에 마침내남편과의애정까지를 족질하여주는 이무서운 위기에는 젊은안해들위해 여기 張文卿女史의 탁견이 실녀잇다。

자 우지를말고 이날로『女性』新年號를사다 읽으라! 그리하여 가슴에 괴로움을 안고 혼자방속에서 울것이아니라 여성신년호에 쓰인 여러선생의글을 참고하여 그해결책을 구하라 인생은짧고 괴로움은크다。

一、[illegible]　張文卿
피어스氏와結婚하는가
一、結婚一年生座談會　尹恩姬 金午男 金聖哲 朱壽元 孫貞順 朴奉愛
一、오늘의젊은이는異性에게무엇을要求하나
◇冷靜한批判的眼을　城大申 [illegible]
◇[illegible]
◇젊고돈잇는男子 [illegible]
◇精力을[illegible]　京保申 [illegible]
◇依然에안서 冷靜하라 世專李 [illegible]
◇무엇보다 貞實한男性을　保育 中保 裵甲淳
一、京城各女學校畢業生巡禮記
一、朝鮮에나타난女性運動　金汝權
一、入學難 끈어진기—타운　金順[illegible]
女性界消息 家庭時事解說內外珍聞 主婦메모 其他設問數種 우지맙시다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朝鮮日報出版部發行

犧牲的奉仕定價
詹篇珠玉의玲瓏譜

『장창이 그림』
『장창이 얘기』
『갑작고 재밋는 少年』

이것은『少年』을 한번구경한분은 누구나다 입에 올리는말이다。십전잡지에 이러케 그림이만코 이러케 얘기가 하나가득할수가잇슬가。『少年』은 참으로 그림두서이요 얘기회수분이다。그런데 이번 新年號는 페이지를 부쩍늘리어 特大號로꿈엿는데 책갑을 二十錢으로하려다 그냥그대로 十錢으로햇다。이는 우리『少年』이 아니면 꿈도꿀수업는 파천황의 희생적봉사정가(犧牲的奉仕定價)다。표지는그라비아 회보는 옵세트 백페이지나되는 내용엔 장장이 그림 그러고도 책갑은 十전! 그런데 학교나 소년회나 주일학교에서 단체로 이십부 이상을 한꺼번에 주문을하면 二割을까가 한부에 할전씩으로 해드린다『少年』은 다달이 나오자 절판이므로『차차사지』하고 주춤거릿다가는 큰낭패! 나오거든 곳 책사(전조선 유명한 책사에는 다『少年』이 잇다)로가서 구하시기를 바라는데 서울조선일보사(振替京城五八七八番)로 직접 주문을하셔도 조타(一年先金 一圓十錢)

『어린이는 명일의주인공』이니하고 누구나다 입으로는 떠드는 말이지만 보라! 그들이 지내는모양을 볼때는참으로 한심하기짝이업다。보다 몽만한그림책한권이잇는가。그들이 가지고놀 작란감한개가 잇는가! 이럿틋 적막하고 우울하게자라가는어린이는 우리조선의팔백만소년소녀말고는 다른곳에서 다시 차자볼수가업는것이다。진실로희망의꼿이요 명일의주인공인 그들을 어처럼푸대접하고서야 어찌명일의 영화를기대할수가잇스랴! 그런데조선어린이들에게 내줄선물은 비단옷도아니요 맛난음식도아니다。그보다도더긴하고 급한것은 마음의 양식이다。마음의양식!『少年』은진실로 마음의양식인것이다。조선의 아동연구가를 비롯하야 전조선각방면 부형의 절친한상가운데 나날이발전하는『少年』은『一家一冊』의 모토—아래 남북삼천리 방방곡곡에 차저들어 오백만조선가정의 명일의가운을 축복하고잇는것이다。이 보배로운조선소년 과외동무『少年』을 한시바삐구하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사하라!

新春을裝飾하는
三大少年小說

시방 서울시골할것업시 물결롯 야단인것은『少年』에 다달이나는 탐정모험소설 金來成선생의『白假面』이다。서울 한복판에 돌연히 나타난 白假面! 저무서무시한 白白敎와 한쪽이나 아니가하고 白假面이 서울에 나타낫다는 호외가돌자 서울사람들은 두다리뻣고 잠들자지못한다。그러나 흰복면을 한 괴상스러운 白假面의 정체는과연 무엇인가? 잡힐듯 잡힐듯 아니잡히는 신출귀몰(神出鬼沒)의白假面! 新年號『少年』에는대준이와 수길이、이 두 용감한 소년이 白假面의뒤를 쫏는데서부터 시작된다。거진거진 자괴게된 白假面!『비밀수첩』을어든 탐정왕 유불란씨、과언 그 수첩에는 무엇이적혀잇는가?

白假面과 아울러『少年』의二大자랑인것에 北京계신 朱耀燮선생의『웅철이의冒險』이잇다 이소설은 저유명한 세계적작동화『이상한나라의아리스』보다 훨씬더 재미잇고 아기자기한조선조유의 장편동화로서 웅철이란 어린소년이 땅속나라로 달나라로 해나라로 또 별나라로 토끼 한마리를 데리고 가진모험을 무릅쓰고 칭칭 돌아다니며 가지가지 기맥힌 고생을겪는이야기、모험을、조하하는 씩씩한 소년들은 누구나다 한번 꼭 보아두어야할 대모험동화。

그리고 도하나 새해의 선물로 이 두 소설과동화외에 또한개의 장편모험소년소설을 실엇스니 숨은 아동문예가 史又春선생의『선모合武勇傳』이다。선모소년아수런장난구래기인 롱과 학크의 모험담。어 三大讀物은 오십전짜리 잡지에서도 구해읽을수가업는데 단十전밧게 안하는『少年』한책에서 한꺼번에읽을수가잇는것이다。(鄭玄雄畫伯의삽화)는 조선화단을빗내는 세밀하고 그림 삽화가 장장이잇다。

少年新年號
特大號大內容

童話 호랑이얘기大會　洪一吾
野談 산범이의눈섭　申鼎言
野談 호랑이와少年
理科 조선의호랑이　李軒求
新年遊戲大會
◇數字그림그리기◇七面鳥잡으러가기◇손안대고모자들기◇성냥의불부치기◇팔죽지로동전잡기
◇이상한총이고리
다시少年이된다면
★더조흔데가서　鄭芝溶
★부모님말슴을　洪蘭坡
★냉수욕과등산　嚴興燮
★어른을도아서　李善熙
★실컨고생을해　李軒求
★내맘대로한번　金復鎭
★천재적발명가　李軒求
★즐겁고기쁘게　金福鎭
★부모님을위해　朴慶浩
特選童話五人集
★일허버린다리　申奇龍
★개와당나귀　李孫夫
★게—와원숭이　姜[illegible]順
★욕심쟁이형　劉一千
★요술손의복수아　朴泰遠
童謠와 자장가
★사슴단잠간집　朴泳鍾
★우리아기자장　李元洙
(노래로서 좋아오신金敎禎선생의作曲부렷다)
新春二大少年小說
◇기차놀이(幼年小說)　金永壽
◇거짓말(學校小說)　宋昌一
◇長篇·선모合武勇傳　史又春
好評의二大連載物
◇웅철이冒險(童話)　朱耀燮
◇白假面(小說)　金來成
實益의課外二大讀本
▲少年健康讀本　崔鉉培
▲少年音樂讀本　洪蘭坡
二大長篇漫畫
○방울이와간난이　金湘旭
○大冒險　全龍虎
이건참재미잇고나
○척척博士 척척問答室　愛讀者
○少年作品集　朴承用
○스켓은왜되나　李承鉉
○그림俗談集　愛讀者
○少年談話室
新年特輯大畫報(옵세트)
▲세배가자 ▲아름다운돈꼿 ▲少年愛讀者寫眞帖
(이 어마어마한 내용에 鄭玄雄선생의 그라비아原色表紙에그런데책갑은겨우十錢)

서울各女校
制服校票巡禮

날마다 지나치는 그들의 제복가슴에 단 徽章을 우리는흔히 무심코 지내 보아왓스니 여기에는 각기 새다른 의미심장한 씨들이 잇슴을보라『女性』신년호에 시내 열두중등학교의 제복과 및 마—크의 해설이실녀잇다。

梨專 梨保 京保 中保 京城 女高 淑明 進明 培花 梨花 同德 女商 貞信

新年의主人公
나는호랑입니다
내이력을한번드러보소

무인년(戊寅年)은 호랑이해다 륙십일년마다 도라오는 이호랑이의 해는 이제 신춘용약을표증하여 다시 신년벽두 그용맹한 포—즈를 다타내게되엿다。이리하여 조광신년호는 무인사상(戊寅史上)에 빗나는 고려태조의 건국실록(高麗太祖建國實錄)이란제로 사계의권위 차상찬(車相瓚)씨로하여금 이호랑이해에 뚜렷하게드러난 사적을쓰게하엿스며 또 야담대가로 여튼난 신정언(申鼎言)씨가 호랑이의 좌담회(座談會)를 개최하여 조선의 엣날호랑이부터 현대호랑이의 이르기까지 모—다 불러다 안치우고 자미잇는 여야기를 시키엇다。그래서 청산속에만 가처잇든 호랑이들이 이신년에는 세상으로 다시나와 그의용맹한 모양을 여기저기 나라내게되엿스니 이 신년이야말로 용맹하는 호랑이의 그힘찬 동태처럼 모—든일사천리로 잘진행될것이다。그리고 청림도사가쓴 백수왕호가지보(百獸王虎家之譜)는 호랑이의 족보로 이호랑이해에 엇서 족보야말로 이호랑이저실것이니 여서 알어두지안코면 무식을면치 못할것으로 꼭한번읽어야 할것이다

三大雜誌發行所
朝鮮日報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春園李光洙著
長篇小說 **愛欲의彼岸**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二十九錢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定價 一圓三十錢　送料 十九錢

세찬주고받기

갑싼것일지라도 이쪽의정성하나

만어야일이원정도로

체면과허세는다집어치웁시다

연말을당하야 해마다 두루거리가 되는것은 세찬보내는것과 이렁저렁 미루어오던 필요품을 사게되는것입니다.

대체 연말이라하는것은 그본래의 의미는 대단히조흐나 요사이는 그것이 그저 인사에 흘러버리고 속된교재로 세찬을하고 세찬을밧는데 지나지못하게되엿습니다.

장사치는 폐외로하더라도 보통사람의대상이나 편리들은 이것으로 말미아마 얼마나 두통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폐풍은 생존경쟁이 심하고 세상이 각박해지면 질수록 더할것이니 어것을그만두라고는 말할수업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에잇는 편리나 지배적립장에 잇는 사람의 처리여하에 의하야 얼마쯤은 개선할수잇는것입니다

더욱금년과가티 미증유의 비상시의세밀 서로서로이것을사양하고 미리 약속하야서 이러한폐풍을 업게하도록 하는것이 조흘니다.

동료나 친척간에서로주고밧고하는것은 더욱아무런의미가업는것입니다.

동료간이면 서로 상대자의체면을 잘알고 잇는터이라 이러한폐풍에 사로잡혀서 세찬을 교환하지안터도 아구른 섭섭함이 업슬것이매 농담비슷하게 세찬을그만두기로 하자는 약속한마디면 완전히 폐지될것이안입니까 친척간에도 그럴것입니다

한편만두어도 여성스럽다고주저하는것이 상정입니다

어려할때일수록 오래동안의 미연시게속되던 폐습을 타파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말 조흔의미로서 어떠한일이 잇더라도하지안흐면 안될자리와 경우도 잇을것입니다.

이러할때 그냥백화점이나 상점에나가서 더좋은사로이 결저사는것은 서투른수작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지안흔것이므로 밧는사람도 반가워하지안습니다.

갑시 비싸고 협한것을가지고 성의를보이지말고 물건이 소용되는물수에따라서 결정하도록 저편형편을 살펴서 무엇이제일 긴요한가를 아라서 사야합니다.

그러므로 세찬사실때는 보내슬곳과 물건이름과금액메산을세워가지고나가도록하십시오.

예를드러보면

××씨에게 일원내외의간즈메

××씨에게 삼원내외의목도리

××씨에게 이원내외손수건

이와가티 적어가지고가서 사면 일이훨신경편하고 탈이업습니다. 이러케구섭게하더라도 나중에보면 부족한데도잇고 잘못사섯다고생각나는데가잇서서 오래도록께를 치할수가만습니다. 그리고 되지도안흔자존심파허장으로 물건을사지말고 어되까지던지 분에맛도록생활을보이도록하십시요

물건이란는것은 밀ー하고 몬잇슬때 떼떼떼사서두어야지 오늘래일하는지 그러지안흐면 주저하다가보면 나종에는 몬모두써버리고 사기에 동전보두써버리고 작업서서는안될물건을살때는 벽을내거나 무리를하게되므로 가게가 물어들어갑니다

한번잘못돈을 사실한 살림사리에 산을 바라잡기가 황소모아지를 꺽는것보다 더힘드는것입니다

연말의 월급쟁이가정은 특히주부의 주의가 절실히필요한것입니다.

냄새의예술

코의쾌감대(快感帶)

호사의제일과·향수맨드는얘기

현대인으로서 적어도 근대적 인생활을하고잇는 사람가운데는 우피칸이라던지 코티ー라는것은 벌서한가지상식으로 되여잇습니다

방직공장에다니는 아가씨들까지도 머리에 솔질과함께 야릇한 짜스민이나 『헤리오트롭』의 향기를 발산시키고잇는 형편입니다.

옛날부터 벗파한기ー 주비잇는곳에 향기를 구하는것은 인간만이아니라 생물의보편적인본능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천년이나예날부터 벌서 애급에서는 향료의제조판매가행해저잇섯다는것은 그당시의벽화가운데 나타나잇지안습니까

『크레오파트라의코가 반인치만 나젓더면……』하는것은 흔히짓구진 천주들의입에서 흔들는말이거니와 이말과가티 『면의향료가업섯다면……』하고 큰일처럼 생각할수잇도록 그것은 우리네 의생활과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잇습니다

향료는 주장식물과 동물로부터 채취하나 근대에는 화학이 발달되여서 여러가지 약품을가지고 화학적으로 제조하게되엿스나 멋산것은 천연산(天然産)입니다.

천연보석과 연조보석 천연견(天然絹)과 인조견과 마찬가지로 어느것어나 인파편게를 가지고 잇는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식물에서 향료를 취하는 천연적조건은 되여잇스나 아직 공업이 발달되지못하야 이용되지안흐며 사슴도 잇긴하나 사향(麝香)을 취하는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저식물성으로는 ●●하를 겨우 어용될뿐입니다. 화학제품도 근래에는 어떠케 조밀하게 만드는지 천연향료와 조금다름이 업시 만들수잇게되여잇스나 조선에서 어방면의화학공업은 아직 요원한 장래의 이야기가 아닐수 업습니다.

사진=1、향료맨드는데 별로히 거창한기게가 소용되는것은 아니니 소주곱드시 뭡교로부터 증류(蒸溜)하하고 또하고 하면되고 마는것입니다.

2、『요ー논』이라는것은 바이올렛의 인조향료 재료인데남양의레ー모그라스기름으로 부터 맨드러냅니다. 넓비하게 굴러잇는통이모두 그것입니다

3、요새유행하는 『악파ー』게등의 향수원료인데 말향경(抹香鯨)이라는 고래창자속에서꺼내는것이 룡연향(龍涎香)이란것입니다 말인즉오징어를 먹는죄로 생긴것이라지요 큼큼한는지 냄새가돈냄새가 나는것인데 일킬로그람(이백칠십돈)에 승못 됩니다) 에갑시사천원이나됩니다

4、산골의 처녀라는 어름을둣는『히트록신·씨트로네랄』이란 향수는 아이스크림맨르드시 어름덩어리속에 너코 휘저어가며 맨드답니다.

5、향료의 제품은 병속에침전시키고 또는 휘젓고합니다. 이러케해서된것이 화학적으로나 불리적으로 충분히 검사되어마지막으로 냄새잡는는 심사원의 코에합격이되어야 세상에나가게됩니다.

6、아푸리카에 『게란움』의천연향료의 산지입니다. 그리고에디오피아는 『삐트』라고하는사향묘(麝香猫)라는 즘생에게서나든 향료의 본고장입니다 여러한천연향료를정제해서 맨든 향료는이십오그람 한병에 백원이상갑니다.

家庭

라이스카레ー는 날더운때먹는것

혼히대절한 식당가튼데가면주문하지 안흔데도 내여놋는라이스카레ー가 잇습니다. 어려한 라이스카레는 정말카레ー맛을 모르고 먹게됩니다 카레ー는 천천히 끄려야맛이나는것입니다.

카레ー라하는것은원래 열대계방인 인도(印度)의것입니다. 타르미·카레ー라는 오래저파(科)의 식물과 『크란』라고하는 나무잎사귀를 원료로한 극히 매운향료를 가지고만든것인데 인도사람들이 이기후 절러서먹는것도 위리가잇습니다 매운것은 더위를 물리치는데 대단히효파가잇스므로 이것을 질겨먹게되엿습니다.

카레ー는 이것을먹고잇슬때는 엽안이 확근확근합니다. 그리고몸에 렬이오르는것가트며 더운기운이합니다 그러나 다먹고나면 속이싹ー 느려지고 치위지는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인도가티더운곳에서 질겨먹습니다 이것을모르고 날이추우니 라이스카레라도 먹으면 후후해저러니 생각해서는안됩니다

바늘만한칼들고

야ー잇 뎀벼라!

조고마케된『사생결단』

홍아리나 독일가튼나라에서는 예날부터 결투라는것이 크게류행해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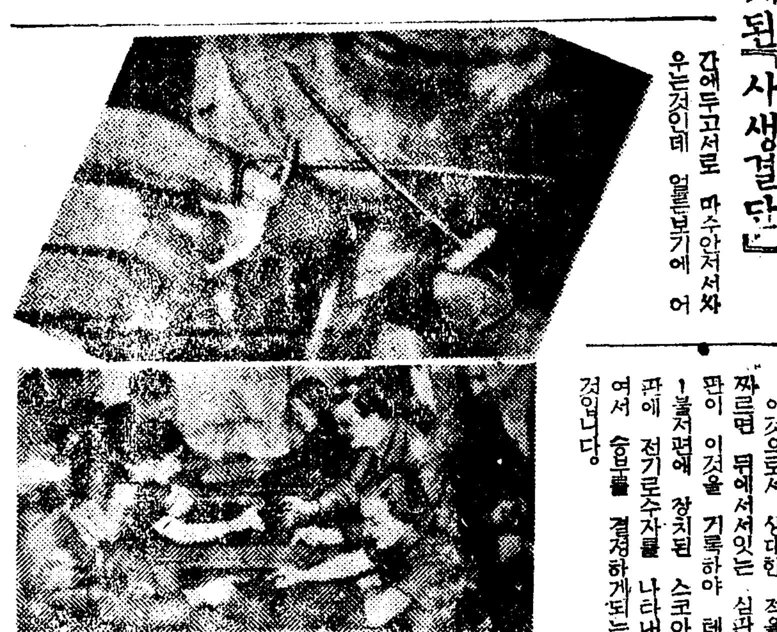
사각관계로 옥신각신할때는 그연애의 적과적사이에 결투가행해지며 사나이의체면을 손상시키고 모욕을당하엿슬때다 결투를하게되여서 공공연하게 피를흘리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사풍으로 대단히 숭상되던때는지나고 지금은 법률로 금해노코잇습니다.

그러고보니 재래로 내려오던결투심리는 업서지지안헛스므로 결투의대가 『사ー가』박사는 결투유히라는것을창안하야 지금한창 류행하고잇습니다

이유히는 헤드핑모양으로 생긴적은칼을 손구락끄테다 라매고 두사람이 테불을중간에두고서로 마주안저서 싸우는것인데 얼른보기에 어린아이들의작난가틉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투는결투라 피는흘리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상당히 아깃자깃한맛이잇서서 현대인의말초신경자극하기에족합니다

이것으로서 상대한 적을 짜르면 뒤에서서잇는 심판이 이것을 기록하야 테ー블저편에 장치된 스코아판에 전기로수자를 나타내여서 승부를 결정하게되는것입니다.



개기름흐르고

점잇는분은

…세수할때이러게해보십시요 음식들도가려야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기렷스니 한닥만나잇스면 벌서 신춘입니다 따라서 얼굴화장에도 겨울화장과 신춘화장이 달러야하며 그준비를 지금부터 하지안흐면안됩니다

화장이라하더라도 각각 자신의 살결에맛도록 방법을 취하지안흐면 도리어 해를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결성질에 따라서 조심하야 화장법을 아러두시도록하는 이 조흘니다.

첫재 살결이 거치사람은 선선한야채와 파일을 만히 먹으십시요 혈색이 조화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우유도 될수잇는대로 만히먹도록 하십시요

손결은 미온탕(微溫湯)으로얼굴을씻은뒤에 유성(油性)의 유액(乳液)을 바르고 손구락으로맛사ー지를하며 그뒤에 크림을바르도록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식 피마자기름에 올리ー브기름을 반반식 석거서 제오파가티 더웁게하고 탈지면에 찍어서 얼굴을두드리는것이조흡니다

표백 패크와 자극이심한미안술은 될수잇는대로 피하십시요

더운방에 드러안지면 기름기가 떠오르는분은 자기가무엇을 질겨서 먹는지 음식을 조사해보십시요 생선 고기 텐부라 푸라이등을 보통이상으로 만히먹엇다면 이것을 조금적게먹고과일과 야채를대신 먹으시지요 굴과자대신으로 만히먹가른것은 고흘을 만히마시며매일산보를하야 신진대사를 왕성케하십시요

아침저녁은 더운물로 벼누세수를하고 나종에 냉수로 씻서야합니다

나제 피부의 기름기가 동기시작하거든 유액(乳液)으로닥고 아스토린젠트로ー숀으로 눌러줍니다

열홀에 한번식은 표백될지올단속합니다

미안법(頹白脫脂美顏法)을쓰는것이조흘니다.

더운방안에 드러안젓스면 얼굴이 붉어지는이가 잇습니다 그리고 밧갓추운 공기를쏘이면자주비즈로 변하지안습니까 밧갓헤서 일하는분의 살결에 이런이가 가금니다. 이 … 세수를 될수잇는대로 피하고 콜드크림으로 얼굴을맛사ー지하도록하십시요 세수대야에 카르분젠기(카르분젠기)를 한두방울떠러트려서 얼굴을씻스면조흡니다

또한 피부를부드럽게하고 보호하랴면 영양크림을 반듯이쓰도록하십시요

면식을피하고 극단으로 더운것과 극단으로찬것과 자극이심한것은 먹지안토록 하는것이조흡니다

함부로때를못뺄

금부치와보석

닥그면무게가주는순금 물끼와솜을꺼리는보석

반지는 늘끼고잇스면 조각한사이에 몬지와때가 끼여서 맘채가나지안흐므로보기에 흉할분아니라 멋대가리가업서보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조손질하십시요

그러나 섯불리손질하다가는 도로혀실패하고 나종에는 억망이되여버립니다 금반지는 억세이헌겁으로 문질러서는못씁니다

반듯이 칠이조흔 벼누를 미온탕(微溫湯)에 풀어서 담갓두엇다가 씻고부드러운헌겁으로 조용히 문지르되 안경다께로닥그면 더욱조흡니다.

금이 조흔지질사록 질이연해서 함부로닥그면 무게가 줄기쉬우므로 조심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칠제로 닥그거도 빗걸어 아름다워집니다.

백금도 금과갓습니다.

은반지는 때때로 알콜에 버묵가루를 풀러서 헌겁으로닥그면 조흘니다

무엇이던지 조각 한것은 몬지를닥고 몬지나때를 씻처힘이드니까 알콜을 솜에 못처서 조용이문지르고 비로ー드나 안경다깨로 닥도록 하십시요.

진주반지에 더운물은 금물입니다.

깨재로 목욕을하던지 더운물에 세수를하는것은 반지를 망처놋습니다.

반지를 씻처라면 냉수나 올리ー브기름으로닥고 갈분가루속에 너허두십시요.

흐히 솜속에 차두는이가 잇스나 진주의지방(脂肪)이 솜에 흡수되여버리므로 광채를 일허버립니다.

루비ー나 사파이어가튼것은 깨여지기쉬우니 부닥치지말도록하며 갑작히 더운데나 찬물에 담그며 광기에 부다치게하는것도 금물입니다.

다이야도 어와가트며 씨슬때는 헌붓을 잘빠라버리고 끄를 끈허서 솜솜만드러서 조흔비누물을 개여서 씻고 벼로ー드로닥습니다.

발돗이 벼누분이 남어잇지안토록 주의하야 솜에차서 케이스속에 너허두는것이조흘니다.

담배석(蛋白石)은 열이금물입니다. 더운데 부다치면곳깨여집니다. 이것도 비누나 알모니아물 엷게해서씻는것이조흘니다.

혈키옥(玉)은 물끼(水氣)가 금물이므로 물로 닥지말고 헌겁으로 닥는수밧게 도리가업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던지 갑빗싼물건은 그다지 조흔일이 아닙니다 당생배도나지안코 허러지기도쉽지안습니까 더욱 집에서 닥거어쌔하지던 신용잇는 귀금속상에게 맛겨서 닥는것도 조흘니다.

우리차지

콩나물

알겟니?
시루에다가 파란콩을
너코 며칠동안 자주
자주 물을주면 콩에
서 하ー얀 뿌리가
나오게된다。이것이
콩나물이다。숙주 나
물은 녹두를 가지고
이러케 기른다

(글쓴사람 김북희)

갓빠라낸빨래가

빗이누런까닥

비누가 언제발명된 어쩌케사랏는지는 모르나 오늘날 우리네의 살림사리가운데서 만약비누가 업섯드면 어떠케되엿겟습니까

비누가 편리하다고 하는것은터 말할필요조차업습니다 그만큼오늘날에는 비누의 종류도 여러백종류가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큼종류가운데는 정말 좋은것이나 나쁜것도잇고 불량제품도만습니다.

날마다쓰는비누를 매수품제인케생각하다가는 큰손해입니다

비누의첫재조건은 때가잘지고 조금써도 효파가 강하지안하서는안됩니다.

거기에는 빗파모양파 냄새로서는 구별이 될수업스므로 일일이 써보지못한 다음에야 어떠라고 말할수업습니다.

그러니 처음사실때는 얼마나 정평이 노른것을 살수밧게업습니다

비누의원료는 기름으로서 그기름의 질이나쁜 똥라성기름이라던지 제조법이 조잡한것은기름이 잘지지안흐므로 씻수뒤에 때가 잘지지안코 섬유사이에 침전되여잇서서 빗갈이사나워지며 옷감을 상하게합니다

써슬때는 멀쩡하게 때가간것가트나 오래두면 비누분이 산화하야 붉어지는것입니다

보통세탁비누로서 조흔것은 그러타하야 무엇이든지 마루세루비누만사면 저파가업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불란서에서온 마루세루비누라면 순수한 오레ー브기름으로맨드럿스므로 떼이업스나 보통점두에서 파는것은 일홈이마루세루지 다른식물성기름을 가지고 맨든것이며 그가운데는 기름을 혼합한것도 잇스므로안심할수업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데는 더운물로씨서보아서 잘푸러지고 거품이잘이러며 씻은뒤에 비누기운이 곳 빠지는것이 조흔것입니다

양잣가튼것을 빨태해보면 언재든지 오래동안비누냄새가 나는것은 좃치못하며 손에기름을 만진것처럼 불쾌한 생각이드는것은 나쁜것입니다.

경수(硬水)로세탁을 할때는 아무리 조흔비누라도 효과가 나지안흐니 반드시양재물을 쓰십시요 양재물은 알카리므로 경수에풀러서 중화(中和)시키고 옷감을너허서 때를뭇게하야 비누를쓰면 거품도잘일고 때도잘집니다 가루비누는편리하나 잡것이만히석겻스므로 유리에다가 가루비누를 조금노코 물에개어보아서 고루고루퍼지면조코 뭉처지면 좃치못합니다.

컵에게여보아서 침전되는것도 나쁜것입니다

험하고 제조회사가 애매한것은 쓰지안는것이상책입니다.

약을 먹어서는 부인병은 낫지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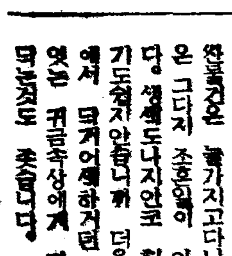
부인병이란 어떠한 병이나하면 대개 자궁속에 병균(病菌)이들어가서 그로 말미아마 여러분이 괴로워하고계신 증세를 일으키고 잇는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부인은 물론이요 어린애시절 또는 처녀시대에도 걸리는 병인만큼 혼여하자면 누구던지 여러증세가 엿거나 하셔고 부인병의 치료를 등한시하신다면 그로 말미아마 一生을 배참한 신세로 보내시게되기쉬우니 하로밧비 적당한 치료법을 선택하여서 속히 병의근을 뿌리빼버려주시기바랍니다

엇제 그러나하면 먼저 말삼드린바와가티 병의근원 자궁속에 잇는병균만 죽여버리면 낫게되는 까닭이니 그중거로는 병자이 흔히 절을반들고 못개하고 지불오게하야서 그점들과 고름이 흔히 나오게되니 즉 이것이 『대하증』입니다 그런데 부인병을 곳치시라고 흔히 먹는약을써서 치료하시나 위장을 지내서 약간 오줌에섞겨서 그곳에잇는 병의근에 작용하는 내복약쯤으로는 죽기에너무도 적한병균이며 흔히도 낫지안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바와가티 『대하증』도조금도 낫지안흔것은 정녕리치가 아니겟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조금도 주저마시고 『와세돈球』로 치료하시사 속히부인병을 근치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떠한치료법이 제일적당하나하면 전문병원(專門病院)에가서서 의사의 진찰을 바더주시거나 혹은 제국대학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쓰는 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제공된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로 직접병의근인 자궁에 치료하시면 자택에서도 유명한 병원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손쉽게엇게되여 단시일안에 부인병이 근치되어 버립니다



다음과가튼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곳낫습니다

아래배 아픈것 — 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 아푸며 진땀이흘르며 월경때면 신열이나고 더욱 아퍼서 햇솔식눕게되시는분 월경이고르지못하고 월경의분량이적엇다 만엇다하는분 불유통과연기가심한분……

대하증 — 처음에는 코가튼것이 나오다가 차차 이흘르며 악취가 나게되고 자궁이 몹시아푸며 오즘이 자주며 국부가 쑤시고 절니며 가려웁고 열이나는분……

눈거미 — 머리털이 몹시빠지고 비듬이 만허저서 몹시가렵고 얼굴에 잔티가생기며 눈거미가 생기고 살결이 거칠어지는분……

자복업는분 — 결혼(結婚)후 二、三年이되여도 아직것 아해를 배지못하시는분、부부화합에 고통을늦기며 자미를 모르시는분、류산하시는분、사산을하시는분……

이상과가튼 증세가잇는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 무슨약보다도 속히 근치되오니 중한분은 하로에 한개식 경한분은 이틀에 한개식이면 충분합니다 제때의 거무데나는 넷는약처롭 거무물이 흘러내리든가 질거어가 나오는법이업고 넷키에도 조금도 이상한기분이 도지안흐며 낙재때 자택에서도 유명한병원치료와 똑가튼 효과를 어더서 단시일안에 근치되는약입니다

부인병에곳낫는 와세돈球 帝國大學病院婦人科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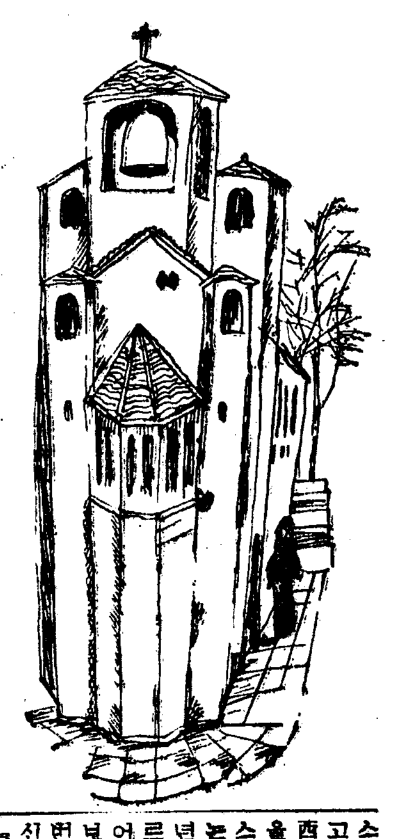
약한개三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는 각지대학병원 帝大病院 赤十字病院을위시로 유명한병원에서 현재매일수만혼환자를구원하고잇는 의사전문약을처음으로 민간에 제공한약인만큼 그신용과 우수한효과는틀림업스리지안어도 잘아실줄밋사오며 본보에독자에한하야 우표삼십전을 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약가는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三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四八日分四圓二十錢)

東京市麴町區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洞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미중지하시면부인병자택치료서』를 거저드립니다

學藝



匈牙利出生의樂聖 「리스트」의 一代記 (三)

洪 [illegible] 坡

에 쏘리텐 첫사랑의 상처를 씻을길이 업서서 그는 사랑의 정열과 종교심의 중간에서 무한히 번민하고 고통하든 남어지에 [illegible] 중병에 걸니기까지하야 『파리』의신문은 그가죽엇다고 전한일조차 잇섯습니다마는 그의두터운 신앙(信仰)의 힘은 여것을 이기고 마럿스니 그가 그후十년여나 지나서 쓴 일기에 『어정결한 소녀는내가 눈물을 흘리가며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제물(祭物)이다』라고 쓴것을보아도 알수잇습니다. 『카로린-느』에게 잇서서도이것은 너머도 쓰리고 압흔 상처가되야 여것이 그의첫사랑의 상처인만큼 그의 비통한마음은 무엇에 비할길이 업섯습니다. 그후 그녀자는 어떤 시골귀족에게로 출가햇는데 그귀족은소작인의일이나 가축(家畜)의일에만 흥미를 가지고 지낫슴으로 『카로린-느』는 일생을 통하야 행복스런날은 하로도 업섯다고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잇서서는 불행하엿던 그여자라도 한때는 어떤 [illegible]의 악성에게 부인으로서의 전형(典型)을 보여준것만은 영광이라고 하지안을수 업스며 『리스트』에게 잇서서도『카로린-느』의 감회는 실로커서 그의 분방(奔放)하고 호탕한감정을 어떠자의 감회로만이 저어해오게 됨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첫사랑의 애달은 추억이라하더라도 세월이흐름에 따라서는 자연히 어저버리게 되는것이니 여것을 어찌 『리스트』에게 잇서서만 그예외(例外)를 차즐수가 잇겟습니까. 『카로린-느』에 대한 실연의 비애는 一八三○년에 여러난불란서 혁명때에 『프로리』공작부인과 새로 알게되여서 그 상처를 씻을수가 잇섯스니 늙은공작은 꽃과가티 어여쁘고젊은 부인을 동반하야 [illegible] 란한 거울의 방을 자내기위하야 시골에잇는 별장으로가서거기서 며칠을 지나게될새 그때에 정열과 미모의 청년음악가 『리스트』를 데리고가는데는조금도 위험을 느끼지는 안햇던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되지안는 별장의생활은 의외로 중대한결과를가저오게햇스니 그것은여러분의 상상에마끼려하거니와 하여간 『파리』의 사교계에서는그비들의 러해에 대하야 여러니저러니하고 별의별소문이 떠돌앗던것입니다. 그러나 어가론 뀌족작생활에 실증이나 『리스트』는 몃홈후에 『파리』로 도라와서 『푸라-똘』백작부인에게 『교로-리공작과의 교제는 단지고상한 불란서의 풍속을 배운때 지나지안는다』고 편지를 써보내엿답니다.

『프로-리』 공작부인과의 련애는 그후로는 트를수업게되엿다 신에 그다음번에는 『따그르』백작부인과의 로-맨쓰가 잇는거시작햇스며 거기서 또다시 자연의 형세로써 유명한 『조루쥬·상드』와의 연애사건이 어려낫고 그뒤를니어서 『로시아』의 『윗트겐쉬타인』공작부인과의 동서(同棲)생활과 경쟁(爭鬪)는 가장유명한사실임으로 여멋가지일에 대해서간단하게 어야기하라합니다.

6

백작부인『따그르』는 『사람을 뇌살(惱殺)식히는미인』이라고까지평판이굽던 여자엿습니다. 『리스트』와 그여자가 손에손을잡고『파리』를 떠나서 서서(瑞西)의 『주네브』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한것은 一八三五년이엇스니 그때에 『리스트』의 나이는 二十四세요 그여자는 六년우인 三十세엿습니다. 『따그르』는 남의 안해요 또 남의 어머니엿슴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적은 천년예술가를한번보자 그는 자기 남편을 헌신짝가티 차버리고는 단거름에 마렷스니 어느누구보다도 여여 『리스트』의 품에 안겨버리고 자야말로 『리스트』의 관룡(官能)을 마비식혀노로 맛배식히고 그의 사람의 정열을 불태대로 태우게한 여자입니다.

그리하야 그들의 사이에는 사랑의 열매로 三남매를 가젓는바 맛아들은 일즉이죽고 둘째딸은 불란서의 정치가에게 출가하야 『나폴레온』三세의 조정에 화형(花形)이되엿스며 막내딸『코지마』는 처음에는 『뷰-로』란 음악자의 안해가 되엿다가 나종에는 유명한 『와그너』의 안해가 되엿자입니다. 이러한 세사람의 부성당한 저당물(抵當物)이 잇슴에도 상관치안코 그와 남편인 백작은 가엿슨 백작은 그후 어떤사람을 보고서 『리스트』는 언제나 명예잇는사람가티 행동하다』고말햇다하니 어얼마나 판대한 인격의소유자입니까.

그러나 언제나 어가튼 불의의 연애관계가 행복스런 결과를 가저오는일은 극히 드문것입니다. 어두사람에게 잇서서도 파탄과 결렬(決裂)은 그트니찻저오고야마럿스니 그중요한 원인은『리스트』가 작곡가로 자처하며 창작에 힘을쓸때에『따그르』부인은 엽헤서 이러니저러니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도어떠때는 자기의 의견을 재용하기를 요구까지하엿도 잇다고합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종시 그의말을 듯지안햇습니다. 어떠날은 『따그르』가 그의 작곡을 출겨하지안는다고 몃언하자 어떠날도름『리스트』는 크게 노하야 드디여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럿습니다.

歲暮隨筆 (一) 祈◇雪◇文

李 殷 相

눈아 나려소서. 눈이여 나려시파릇에 차히소서.

나는 어제 눈나리서기를 별며 이글을썻다.

退溪와 栗谷의 新雪祭文을부엿어든가. 晦隱正와 賀雪表를써떤것인지.

나는 여제 무엇때문에 여추운날 눈나리서기를 기다리나 눈이 안나리면 [illegible]여 만홈까하야 [illegible]害가 두려워 눈을 기다리나 눈이 안나리면 [illegible]여 흉까하야 明年의 豊農을 賀하입가. 저 [illegible]君과가티 무러운것을 엇다가 거리에 서서우는 재난한 樵夫를 불상히 여기는 마음을 어르키려고 눈올기다리나 그도저도 아니라면 나는 여재 무엇때문에 여추운날 눈나리서기를 기다리나.

눈여나려소서. 눈어나려 山에 차히소서.

童子가 일쪽 栗山에서 밧晝했다가 눈에막혀 도라가지못하야 姜隱을 생각하고 栗山을를 지은것가티 나도 어버이그리는 노래를 부르려고 눈이나리시라 바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 어버이를 못가섯고나.

鄭澈과 揚彦으로 [illegible]에 눈을 마스며 전나귀를 라고안자 詩를 생각하고저 눈이 나리시라 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 나귀를 못가섯고나.

저唐나라 [illegible]가티 [illegible]에서 긴말로 [illegible]하되 [illegible]에기지 아니하므로 눈이 발숭을 덮어 모든이에게서 엷은[illegible]을 오려고 눈이나리시라 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illegible]에 나아가 [illegible]을 못가젓고나.

[illegible] 夫君 저[illegible]이 [illegible] 때부터 [illegible]에서 軍事를 [illegible]하다가 [illegible]에 年老하야 [illegible]을 못하게 죽은것처럼 나도 [illegible] 눈이나리서라 바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아무도 남마저 戰爭할 [illegible]이업고나. [illegible]이 길머리에서서 눈바람속에 몸이 얼면서도 [illegible]을 거다린것가티 나도 어느벗과 [illegible]하고서 눈이 나리시라 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기다릴 아무도 못가졋고나.

저[illegible]과가티 글을아는 子女를 모아노코 文[illegible]를 [illegible]하다가 눈詩를 짓게하려고 눈이나려시라 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 글을아는 子女를 못가저고나.

[illegible] 저[illegible]의 家妓[illegible]서 [illegible]고 雪水를 바더 [illegible]을 끌히며 눈오것처럼 나도 [illegible]을 슬기려고 눈이 나리시라 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 [illegible]를 못가젓고나.

저[illegible]가티 눈오신날 제진과 거리까지 눈올쓸고 길을내여 손님을 마지하야 밤이 깁도록 먹고마시며 『[illegible]』라 어풀하고 人生의 [illegible]을 모르려고 눈이 나리시라 비는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나는 [illegible]할 餘裕를 못가젓고나.

그러면 나는 무엇때문에 어처운날 눈이 나리시라 비는것인가.

눈이 나려소셩. 눈에 나려파틈에 차히소셩.

저 [illegible] 어뜨셔부터 나려오는지 [illegible]은 自由로운 女神가티 나려와, [illegible]고 무엇을 숨기다가 무엇도업시 가버리는 그[illegible]하고 [illegible]한 生涯에 다시금 [illegible]드리런다.

날리는눈을 내려보며 모든 [illegible]的人生[illegible]을 [illegible]야나 자정 現實的인 [illegible]한 雪雨을 자지련다.

정[illegible]고 나무를걷고 그속에 나도 묻여가 [illegible] 記憶을 뎐혀, 過去도업고 未來도업는 無想無念의 大寂寞속에 잠기려다.

눈이 나려소서 눈여나려 山과 들에 차허소서. 나는 저글 형박을 내다보며 눈이 나려시라 비는것어다.

漢詩募集

題 [illegible]
押 [illegible]
限 十二月十七日

詩形에對한管窺 (二)

朝鮮詩壇과新體詩整理問題

崔 文 鎭

어떠한 作家에게 그作家의主觀을 無視하고 닷자곳자로 自己의 主觀을 注入하야 그作家로하여금 自己化하려고 애쓰는 評論家들이 만타 이가튼 意圖는 決局 成功할수업슬뿐 아니라도로혀 自己의 無智함을 暴露식히는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作家가 構想의 世界를 그리던지 現實界를 그리던지 第三者로서 어느程度까지 批判과 助長은엇會지언정 어것을 干涉하야 自己化하려는것은 絶對禁物이다.

그럼으로 詩라고 하는것이 高邁함과 幽久함과 難避한데 참다운 詩의妙味를 맛볼수잇슴을 否認치못할 事實이지만 現詩壇에서 橫行하는 詩들이 넘우도 이가튼 色彩를 띄엿다는것이遺憾千萬한일이다 좀 失禮되는말갓지만 엇던詩는 作者가 自己가지은詩를 限一個月이나 一個

步의 橫行詩壇이며 形而上學的現實逃避의 詩가 막-쏠내는詩壇이라하여도 누가 否認할사람어 잇스랴 이러한 意味에서詩라는것이 畢面的이 아니요 兩面的이며 平面的이아니요 立體的이며 橫도 아니며 縱도 아니다 橫과縱이 交叉되는곳에서 眞正한意味의 詩가 胚胎되리라고 밋는다 우리에게는 創造性이 업슴을 무엇보담도 遺憾으로 生覺한다 [illegible]와가튼 弊端의 詩風이 泰西詩壇으로 日本詩壇을거처 朝鮮에 들어오자朝鮮의 詩人들은 여게對한 何等反省이업시 벙어리가 소짓으로흉내내듯이 그들의正面은 보지못하고 側面만 보아왓던것이다.

[illegible]는바 어詩壇에잇는 詩들은 其後 唐代에 通步된詩에比한다면 詩形과 構想이 아울러 [illegible]함을 [illegible]치못하는것이다 中國文學의 歷史的 變遷을 觀察하다면 詩歌보담 文이 모저 發達되여 漢의文과唐의詩 宋의詞元의曲 어가튼 順序로 發展되여온 詩는 唐代에 이르러서 黃金時代를 이루엇다고 할수잇다 唐代의詩도 漢代의文을 거처서야 비로소 完璧을 期하엿스니 그것은 엇절수업는 不可避의事實일것이다 詩는 文學部門中에서 가장 發達된 文學을 잘다듬어 內容이나 表現에 자장洗鍊된 形式을 이룬때 이른바詩라고 하는것이다 現存한 一漢

漢詩漫話 (一) 歷史的限界性

崔 逢 海

文語와口語의差가 엇슴은 어느民族의 詩文에서도 볼수잇것만 [illegible]民族의 詩文에 잇서서는 그것이 尤甚하다 [illegible]에서 有名한 [illegible]의 [illegible]民族의 文體를 現今 常用하는 白話文體와比較해보라 그文體의 懸殊가 얼마나 놀납지안는가 [illegible]文體도 그當時에잇서서는 上流階級의 一

[illegible]文이 [illegible]엿슴는지 모르나 지금으로보아서는 古典외古典이다 지금우리가 [illegible] [illegible]하는 [illegible]는 [illegible]以來 지금까지의 古文家가 使用한 古典文體이고 [illegible] 도 亦是 그러하다

現今 中國의 新文學運動은 古典文을 排斥하고 白話文을 [illegible]하며 詩도 古典詩體[illegible]신에 自由詩인白話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모양이다 이것은 [illegible] 그들의正當한 方向이다 그러나 우리 [illegible]詩家가 지금까지 [illegible]하는 것은 [illegible]三百篇의 [illegible]인 [illegible]以下 [illegible]의 [illegible]法이다

어古典的漢詩는 [illegible] [illegible]文化의[illegible]에서 內容과形式이 [illegible]을 따라서 그것의 [illegible]라면가 [illegible]까지도 모다 [illegible]를 버서나지못한同時에 [illegible]的性質을 [illegible]나내고잇다 [illegible]의 [illegible]的[illegible]에 對한 [illegible]的[illegible]에 對하야 多少라도 [illegible]的[illegible]와 反[illegible]的[illegible]이 잇섯다면 어것은 [illegible]것도업시 自由[illegible]

[illegible]하는 [illegible]에서 [illegible]한 차저볼수잇슬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illegible]의 [illegible]으로서 公[illegible]形式을 主[illegible]하기에는 너머나 [illegible]하엿든것이다

[illegible] 古典[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的性質을[illegible]하고 現代[illegible]의光[illegible] 現代[illegible]的[illegible]統一[illegible]에서의[illegible]大[illegible]的[illegible]法으로서 [illegible]하라면 [illegible]의[illegible]을 [illegible]와古[illegible] 어것은 마치 [illegible]의 [illegible]가지고서 [illegible]에 千[illegible]을 [illegible]하라는것이며 발근 [illegible]中天에 외마되소리를치는 두리미로하야금 닭이소리나 [illegible]의 [illegible]을 식히려는것이

나 [illegible]은 不[illegible]것이다 一[illegible]서 [illegible]代[illegible]人 [illegible]을 버리서보라

[illegible]花多[illegible]山店

[illegible]人上[illegible]

[illegible]上

上[illegible]는 [illegible]中의作인데 一[illegible]에 [illegible]가 [illegible]하지만 下[illegible]는 [illegible]年에 京城와서 [illegible]의 [illegible]的光景을 처음보고 그린것인데 [illegible]의 [illegible]는 勿論 充分히 볼수잇지만 上[illegible]에 比較해서 [illegible]가 모다 [illegible]이만다 어것은 [illegible]의 [illegible]한 [illegible]의 [illegible]果가 아니다 모든 [illegible] 따착거지로[illegible]에도 一定한形式을가지고는 無制限的으로 內容

을 [illegible]수업는것이다 [illegible]古[illegible]의 形式을 가지고는 모더-ㄴ[illegible]의內容을[illegible]하기 어려운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어떠한 [illegible]하든 李[illegible]山의 [illegible]인데 田[illegible]을 [illegible]하게 [illegible]에 [illegible]한[illegible] 못가 [illegible]지안는가!그러나 [illegible]山으로하야금 現代[illegible]의[illegible]을 [illegible]로서 그려게한다면 그[illegible]에 잇서서는 [illegible]하 더[illegible]하드라도 [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되지못하야 [illegible]의 三[illegible]에 [illegible]업[illegible]이다. [illegible]의 [illegible]的[illegible]는 여기에 어지아니한가

詩情畵意 (廿四)

申 欽 詩
劉 淑 畵

山村에 눈이오니 돌길이 무쳣세라
柴扉를 여지마라 날차즈리 뉘잇스리
밤中만 一片明月이 긔벗인가 하노라

月夜에 다시 그것을 읽어본다면 作者自身조차 얼른 了解하기어려운 詩들이 만흔것이다. 그것은 作家가 思索의世界에서 理想의世界를 向하여가는途中에서 넘우도 自己의主觀을 固執하과 넘우도 自己의 本目標를 忘却하는데서 어가튼差誤가 생겨지는것이다 더욱히 可笑로운일은自己의 眞實이 이方面의 詩를 [illegible]한 사람들도 [illegible]詩를쓰게되매 그것을 [illegible]的으로 模倣하려는 것을 [illegible]하며 [illegible]은 또한 우리詩壇을[illegible]하야 크게 警戒할일이다. 現下의 우리詩壇은 散文詩 獨

그들의 [illegible]을 부잡지못하고 皮相的外形만 模倣하기에만 汲汲하엿던것이다 理想과 思索에 끌리는詩가 低級되[illegible]의 詩라는것이 아니라 넘우도 그것을偏重함과 [illegible]함을 크게 警戒할일이며 우리의 反省을 要할問題라고 生覺한다.

×

西歐詩와 우리東洋 漢詩의 優劣을 論하게된다면 實로나 量으로나 伯仲을 가리기 어려울지언정 西歐詩가 決코 優越하지는 못할것이다 어느意味로본다면 漢詩가 도로혀 優勢할망정 西歐詩에 讓步하지를 안을것이다 歷史的으로 發展된 經路를 볼드라도 作詩上에잇서서 一國의 國法과가튼 [illegible]된 規約이잇서 이規約을 犯하는詩는 아무리 內容이 充實한 詩라할지라도 優秀한詩로 認定하지안는다.

漢詩의 [illegible]을 [illegible]으로 [illegible]詩가 偶然히 [illegible]된 [illegible]物이아니라 許多한 [illegible]과 二[illegible]의 [illegible]期를거처 [illegible]한 規範이 맷처서 [illegible]되여 왓다는것을이 저서는 안될것이다 漢詩의 [illegible]를 槪別的으로 記述한다해도 風、雅、頌、賦、比、興等 許多한 部門으로 논할수가 잇나니 詩家에서는 이것을 詩의 大義라하며 風、雅、頌을 [illegible]이라하고 賦、比、興을 [illegible]라고한다 그러하야 이가튼[illegible]의 詩에는 제각금 [illegible]히 지켜야할 規範잇서 이規範을 犯하는者는 詩로서의 資格을 [illegible]케 되는것이다 假令 詩에는 바다시 [illegible]된 平仄을 使用하는것이라던가 혹에는 [illegible]을 使用하는것이라던가 또한 [illegible]를 使用하는것을 押韻이라하야 이押韻이 업는詩는 아무리 名作이라해도 論할 [illegible]가업다고하는것이다 또한作詩上에 잇서[illegible]라는 [illegible]한 規律이잇서 第一句를 起句라하며 그다음句를 承句라하며 그다음句를 轉句라하며 그다음句를 結句라하야 이가튼 [illegible]한 步調로 作詩하는것이다

재미잇는 藝術

三 頭 蛇

藝術이 娛樂은 아니나 그藝術이 一般에게 재미잇게 읽히어 진다거나 해서 決코 못쓴다는것은 아니다 나중에 [illegible]에 [illegible]다. 야릇한 [illegible]에는 조[illegible]는 [illegible]이 小說은 [illegible]것이 업다. 一流作家의 小說도 재 고 미[illegible]과 [illegible]를 큼까지 재미잇게 읽히어 질[illegible]이 아니라

水[illegible]는 [illegible]가 [illegible]에 내 노하서 一二位를 다투는 [illegible]에 [illegible]히 서투른 [illegible]이다 [illegible]로도 서투른 [illegible]의 [illegible]一하야 [illegible]을 [illegible]이 아니다. [illegible] 재미[illegible]를 [illegible] 야 [illegible]의 本[illegible]을 [illegible]하여서는 안된다 그

[illegible]에 [illegible]한 [illegible]의 [illegible]과 [illegible]되기 [illegible]조차 [illegible]는 아니다 作家의 力[illegible]이 거기까지 미치지못하고 또 作家의 [illegible]가 거기까지 미치지못해서 그러케 못되는것이야 [illegible]作品이 재미잇게 읽히어 재미다는것은 그[illegible]이 아니로되 [illegible]이 아니라 보기어렵다 [illegible]이 아니라 [illegible]과 그[illegible]가 [illegible]과 比

[illegible]的 가치는 [illegible]를 [illegible]로 하야금 다른 [illegible]을 [illegible]한 [illegible] [illegible]하는 [illegible]을 무엇보담 大衆을 把[illegible]하는 힘이 크고 또 세게 하는것이니 그것을 否認[illegible]한다는것은 [illegible]의 힘을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시키는 [illegible]고 마는것이 아닌가. [illegible]서는 아무리 [illegible]에 [illegible]하다고 [illegible]되리라 [illegible]을 [illegible]도 [illegible]的 [illegible]은 [illegible]할 [illegible]도 一面이 아닌가. 그러라고 내가 [illegible]을 [illegible]과 [illegible]

[illegible] 純粹한 [illegible]、高尙한 [illegible]、[illegible]人속 一의 [illegible]이 아말로 [illegible]이다 우리는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에서 가장 [illegible]할수잇다. 即 [illegible]의 [illegible]과 재미잇는[illegible]이 [illegible]와 서로 [illegible]지 아니하고 [illegible]的 [illegible]에 [illegible]와 [illegible]는 [illegible] 또 그러케 되기도한것 [illegible] 本[illegible]로서는 [illegible]되지안는것이다.

新刊評 鷺山李殷相氏著 耽羅紀行 漢拏山

李 源 朝

鷺山 李殷相氏는 時調도짓고 史話도적고 隨筆도쓰고 民俗도 이야기하고해도 大面[illegible]해서무엇에나 一家를 지나치게 아루 옳은 세상이 다아는바이다 그러나 鷺山으로하여금 어보담도 더 [illegible]方面의 여러가지를 다 식혀서 거기에 다[illegible]하다고하 드래도 究竟 鷺山의 運命的으로 [illegible]지못할 獨特한境地는 [illegible] 人이라는 한개의事實이다.

그리고도 鷺山은 情緖의詩人 이라고 [illegible]하면 朝鮮情緖의 詩 人이라는것이 鷺山의 運命이며 詩에 [illegible]이다. 그럼으로 鷺山은 무스[illegible] 던지 그行間과 紙背에 일치어 朝鮮情緖라는것에 숨어잇지안흔 곳이업지마는 그중에 鷺山의朝鮮情緖가 가장 細[illegible]하게、가장 [illegible]하게 나타나는것은 그山水 [illegible]記[illegible]이다.

이러한 鷺山에 제남 여름 朝鮮日報社의 主催로 漢拏山探勝 團員을 거느리고 千年秘境인 耽羅의 [illegible] 발을 [illegible]이지 [illegible]이 [illegible]의 [illegible]에 어[illegible] [illegible]에 [illegible]에 [illegible]하[illegible]

어려[illegible]들은 [illegible]山의 [illegible]이[illegible]에 그[illegible]한 朝鮮情[illegible]는 [illegible]에 어[illegible]고 [illegible]에 [illegible]

火砲發達의 一面 (四)

口徑增大과超長距離砲

一 記 者

遠距離射擊은 [illegible]效하게 [illegible]하는 方法도 過去三十年來의 苦心이다. 砲[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되야서 [illegible] 砲[illegible]이 [illegible]되야 잇는 甲板上에서는 보이지안는 [illegible] 멀리 가게 되엿다. 그때 英國砲術의 大家 [illegible]서바서、[illegible]가 [illegible]方位盤射擊裝置라는 것을 發明하엿다。一九一二年十一月 戰[illegible]산다라에서實驗한 結果 그成績이 豫想以上으로 良好하엿다. 그 消息이한번 롱돈·타임쓰紙上에 公布되야 世界에 傳播하자 日本海軍

과 [illegible]에서도 그대로 옛지는 아니햇다。[illegible]의 [illegible]만콤 金錢으로 [illegible]드리지는 못하나마 兩國에서 모다 獨力으로 研究해서 [illegible]하게 成功한 것어다。米國에서는 獨力으로하지 못하는대신 大戰에 參加하는代價로 英國으로부터 [illegible]해 주엇다고한다。

그 [illegible]를 [illegible]해 紹介하면 砲 又는 砲塔에 裝備된 照準器와 [illegible]의 방아쇠를 따로떼놓아서 [illegible]上部 노픈곳에 設置하야 노코 저기서 代表射手一人이 [illegible]을 二萬米고 三萬米에서 마리 照準하면 그 機의 運動에 各 砲側에 一齊히 電送된다。砲側에서는 時計판과 가튼 電送受信器의 바늘에 마치도록 된 砲[illegible]旋回指示針을 가저 [illegible]한 受信器의 바늘을 쫏차 가도록 砲를 操縱하는 것이다。그래서 조타고 할때 代表射手는 방아쇠를 지우면 發火電路가 完全되니까 各砲同時에 同仰角으로 發射한다。但砲의位置에 依하야 仰角의 修正、旋回角度의 修正이 勿論必要하지만은 [illegible]內의 位置는 不變어라 미리부터 修正해 노하도 된다。

[illegible]이 그 [illegible]에 命中되야 [illegible]이 [illegible]部를 破[illegible]시키거나 또電[illegible]路가 切斷되거나 [illegible]에는 砲側射手는 [illegible]과가튼 [illegible]으로 [illegible]가서 各砲[illegible]로따로 [illegible]하고 [illegible]는것어다 요사이 外國新聞의 [illegible]을 보면 砲側照準[illegible]의 [illegible]이어 [illegible] 잇는지 모르는 [illegible] 密閉한[illegible]을 보는데 그것은 方位盤만을 信賴하는것이 아니다 [illegible] 實際로 [illegible] 알수잇는[illegible]이다 그 [illegible]는 [illegible] 모두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第四[illegible]에 [illegible]한 [illegible]를 가지고 잇는것은 [illegible]에 使用하는 光學兵器다 [illegible] [illegible]는 英國의 [illegible]와 [illegible]이라우드博士의 發明으로서 [illegible]는 日[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illegible]第四[illegible]에 [illegible] [illegible]한 것이다 [illegible] 英國海軍을 除하고는 世界에 [illegible]해서 그것을 [illegible]하고[illegible]잇다 (끗)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短篇小說 ※※※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매여쓸것
賞 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戲曲 ※※※ 三幕以內、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賞 若干篇 每篇 三十圓

◇詩 ※※※ 長短、題目隨意
賞 若干篇 每篇 五圓

◇時調 ※※※ 題目隨意
賞 若干篇 每篇 五圓

◇童話 ※※※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매여쓸것
賞 若干篇 每篇 十圓

◇童謠 ※※※ 長短、題目隨意
賞 若干篇 每篇 五圓

◇實話 ※※※ 題目은 조선에 [illegible]한것으로써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 若干篇 每篇 十圓

◇兒童作品 ※※※ 自由畫、習字、作文
賞 入選品에는 [illegible]
[illegible]

朝鮮日報學藝部

日活 日活 日活
19日より4日間大人30錢・學生・小人20錢
江川宇禮雄・黒崎子 主演
男のまごころ 11・30 2・45 6・30
全篇で一番早い 皇軍上海大行進
支那事變速報 12・50 4・05 7・50
RKO特作日本版
海の巨人 1・10 4・25 8・20
◇每日早朝 大人 [illegible] 公 [illegible]
黃金座

大每大每 支那事變ニュース
▲月を消しましょ
▲ブラウンの誕生日
パラマウント [illegible]
チャーリー・ラッグルス エリノア・ホイットニー主演
東寶 [illegible]
RKO超特作ジョー・E・ブラウン主演
十二月十日ヨリ
若 劇

京城新堂町 [illegible]
十一日 全一幕
正劇 長恨夢後日譚 全一幕
時代劇 復讐三尺劍 全一幕
[illegible] 臨海淑의悲話 全一幕
新劇 벙어리냉가슴 全一幕
[illegible] 他房哀話 全一幕
九日 [illegible]
新派 [illegible] 長恨夢 四幕大劇
一 [illegible] 座

十二月八日 [illegible] 特別大公開!
大衆料金 [illegible]
古 城 의 扇
[illegible]
PCL超特作 全發聲
白薔薇は咲けど
原作 [illegible] 主演
[illegible] 殺 生 劍
北支上海戰捷ニュース
黃金町 [illegible]
優 美 舘

中野 [illegible] 東寶 [illegible]
興太者氣質
[illegible]
空中非常線
[illegible]
春風浪士
(日支事變ニュース特別上映)

永樂町
中央舘
本三〇一四
十二月七日ヨリ四日間十日까지
每日晝夜二回 晝間一時夜間七時
◇米國 [illegible] 보루네오의 怪獸
◇米國 [illegible] 人類一億年의 暴露

[illegible] 雙 心 臟
[illegible]
桃花劇場
電話 [illegible]

趣味娛樂

채프링의「모-던타임스」 二月부터 一齊上映
松竹系에서 契約成立

밀거니 대기거니하면서 여러가지 問題를 어르킨結果 一時는 그대로 米國으로 送還이된다고 傳하든 채프링의『모-던·타임스』는 製作된지五年재되는 明春二月에야 겨우 松竹에서 公開하기로되엿다. 이問題에 對해서는 유나社가 固守하고잇든 最低保證金十萬圓은 時代의情勢에 全然 相容되지안홈으로 마침내 讓步하고저 白紙의狀態로 도리가서 다시 ST와 商議한結果 損益折半의 契約에 成立되엿어라고한다 封切方法은『新土』와가리 松竹系封切館全部에 一齊上映하고 二週를續하리라고하는데 五大都市의 封切館은 다음과갓다。

▲東京國際劇場 帝劇武藏野館 ▲名古屋松竹座 中京劇場 ▲京都松竹座 京都座 ▲大阪松竹座 大阪劇場 ▲神戶松竹座 聚樂座

라디오

十日(金曜)

◇午後六時童謠와이야기 一、童謠齊唱 1、참새 2、떡떡이 3、와옹 4、허어질라 5、새약쥐 6、단풍닙 7、개 8、엉감님 9、눈집 10、園歌 二、이야기 1、우리집동산 李源錫 2、가을 同 3、새두마리 李順南 4、착한아이들 同 5、겨울 同 伴奏 安國幼稚園兒童 鄭錦子

◇同六時、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冬期運動 (一) 金正淵

◇同七時四〇分 歌詞 一、竹枝詞 二、春眠曲 金蕉紅 鄭玉姬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軍艦行進曲』 壽明合唱團 指揮 李升學

◇同八時二五分 管絃樂 (레코-드演奏)

◇同九時 時事解說『英國의極東政策』 朝鮮日報 咸尙勳

流行歌의밤 大盛況裡終了

日本콜럼비아와 森永製品의共同主催이며 本社後援인『流行歌漫談舞踊』의밤은 지난 九日午後六時半부터 府民舘에서 열렷든바 豫想과가치 超滿員의 大盛況을 이루엇다。

第一放送

◇午後○時五分 (東)三絃

◇同六時 (仙)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漫談

◇同七時三〇分 (大)吹奏樂

◇同八時 (大)淨琉璃

◇同九時 (東)時事解說

十一日(土曜)

◇午後○時五分 (東) 土曜콘서-트(第六回)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레코-드音樂

◇同六時 慰問文朗讀과童謠 (全國中繼) 『滋味잇는科學이야기』 養正高普 崔在澔

一、慰問文朗讀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四年生 韓玉榮(女子)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六年生 郭重星(男子)

二、童謠 1、獨唱 고드름 2、同 뉴-스 3、同 눈、꽃、새 4、同 日本の子供だ 5、齊唱 꿀돼지 獨唱 梁順玉 齊唱 鄭琦英 伴奏 DK오-케스트라 編曲及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冬季運動』(二) 金正淵

◇同七時四〇分 講演『輸入制限과家庭生活』 徐椿

◇同八時一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石퇴 李東白 鼓手 丁元燮

◇同八時四〇分 一、京畿닐니리 二、山念佛 三、朴淵瀑布 白牧丹 鄭錦紅

◇同九時(東) 合唱 (第十一回競演合唱祭優勝三團體)(一) 男聲合唱 一、三月之夜 크로이처-作曲 二、村의시악시 기엘루프作曲 三、漁夫歌 파-크스作曲 東京리-다-타펠페라인 指揮 秋山日出夫

(二) 女聲合唱 一、舞踊歌 쉬-만作曲 二、流浪의民 슈망作曲 E、O、클럽 指揮 中井和子

(三) 混聲合唱 一、코스틴·데르-프-게 信時潔作曲 二、五月之歌 멘데르스존-作曲 三、보시요아름다운것 成田爲三作曲 玉川學園混聲合唱團 指揮 岡本敏明 피아노伴奏 竹本萬津子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土曜콘서-트

◇同六時零時 (城) 慰問文朗讀童謠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勇士夕

◇同九時 (東) 合唱

十二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同六時 童話『적은발이愛國者』 韓錫源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臺北으로부터) 軍歌와歌謠曲 一、軍歌 가、臺灣軍歌 臺灣戶山學校軍樂隊作曲(吳成家) 나、臺灣國防歌 一條眞三郞作曲(愛愛) 二、歌謠曲 가、南風謠 鄧雨賢作曲(純純) 나、摘茶花鼓 高金福作曲(愛愛) 다、慰問주머니書 古關裕而作曲(齊唱) 吳成家 純純 愛愛 伴奏 臺北라듸오오-케스트라 同 臺北同志音樂會

◇同七時五〇分 歌曲 一、界面二數大葉 二、界面頭擧 三、弄 四、編 文明仙 姜蘭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〇分 大笒獨奏 一、散調 二、鳳凰吹 朴鍾基 杖鼓 韓成俊

◇同八時三五分 一、小春香歌 二、執杖歌 三、달거리 趙英淳 金眞紅

◇同九時 提琴獨奏 一、協奏曲 A短調 빠빠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라-르고 第三樂章 프레스토 二、푸로메스人의窓下樂 쿠-프랑作曲 三、茶話曲 드르들라作曲 四、스-베니르 드르들라作曲 洪蘭坡 피아노伴奏 金元福

國手爭霸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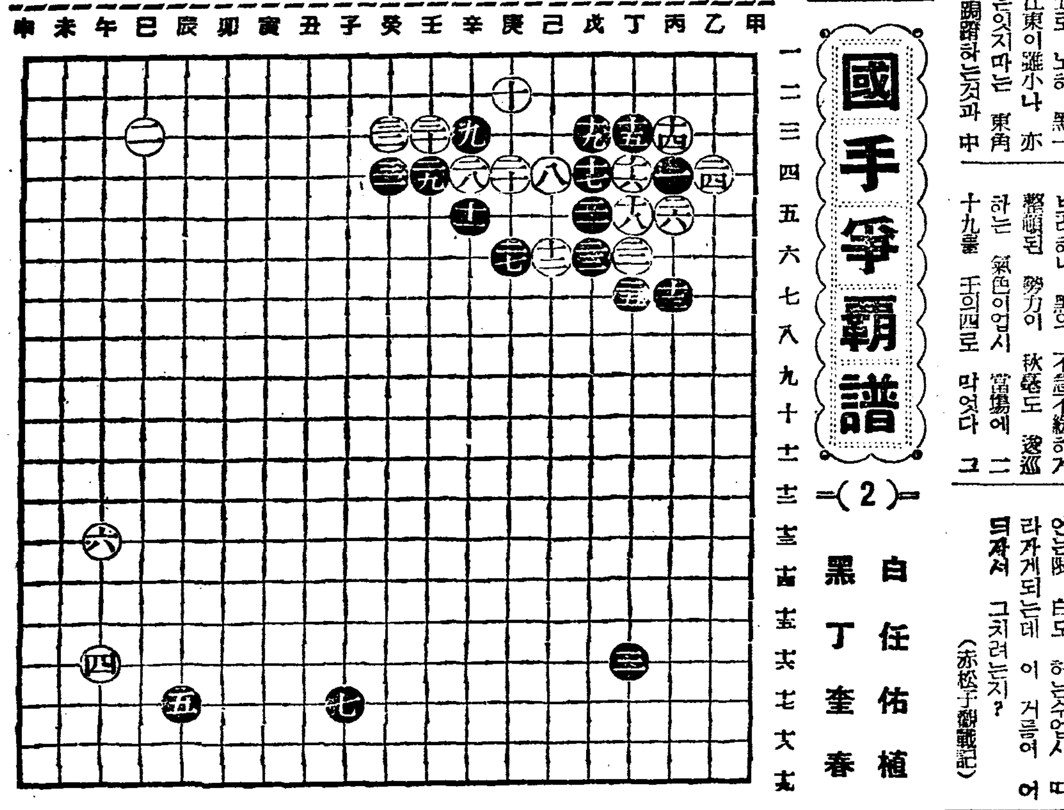
本社獨占

白 任佑植
黑 丁奎春

江東과中原에 利害가孰大오
黑의猛烈한突擊에 石火의迎擊을햇드면

黑十七 戊의四는 一擧에白軍을 三分四裂하려는 覇氣滿滿한 用兵이다. 이때 白은十八을 丁의五로 느러 一目도 假하지 아니하려하나 黑이이미 覇氣滿滿하게 突擊을할진대 白도별수 擁容自重할것이 아니라 丁의五를 戊의三으로 邀擊을하엿다면 彼氏의 陣中에 한번 石火가 이러나서 黑은 丁의五로 白丁의四를 取할것이니 다시 白이 丁의二로 返擊하면 初盤의 用兵이 不利한지라 黑은 丁의四로 이을것이며 그때에 白은 다시 已의三으로 어어오면 비록 白의 丙의三을 犧牲해서 東角여 黑에게 빼앗긴다고 하드래도 白은 已의六을 先鋒으로해서 中央進出의길에 猷弘한同時에 東南邊의 黑軍 辛의二과 辛의五 二目이 孤單하게 되는것인데 白이 十八을 丁의五로나가고보니 黑은 十九를 戊의三으로 노하 前線과 右翼으로 作亂할 餘地를 두곳으로 맨드러노핫다. 그러나 白은 黑이 右翼으로 빼더나오면 엄지이 樹勢한 庚의二가 떠러지고 東南邊의 黑軍과 連絡이되겟음으로 二十을 庚의四로 노핫다 그러니 黑은 二十一을 戊의五로 올라섯다. 白도 丁의五로 올라선 初志를 변치안코 二十二를 丁의六으로 올라가니 黑二十三은 다시 戊의六으로 따라 올라가는지라 白은 우선 角이어나 確保하려고 二十四를 乙의四로 가서 黑丙의四 一目을 取하려하니 黑은 二十五를 丁의七로가서, 白의 進出할길을 完全히 遮斷하는同時에 白으로 하여금 應手케하니 白은 不得已 二十六을 丙의五로 노하 黑一目을取하니 江東이雖小나 亦足以王이란말은잇지마는 東角의 小宇宙에 跼蹐하는것과 中央進出의길이 아주 遮斷되는것과를 比하면 그利害得失에 잇서 果然 어느것이 더크다고할것인가? 더구나 白이 丙의五로 黑의應手를하니 黑은 다시 餘裕綽綽하게 二十七을 庚의六으로 노흐니 敵의 中央進出의길은 어느地帶에서든지 永久히 封鎖되여서 果然 巧妙한 用兵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므로 白은 中央의 進出을 斷念하고 黑陣에 斷絕을 식혀 무슨 변통을 내보려고 二十八을 辛의四로 돌코나가 보려하니 黑의 不急不緩하게 整頓된 勢力이 秋毫도 逡巡하는 氣色이업시 當場에 二十九를 壬의四로 막엇다 그러니 白은 거왕이면 東南邊의 自陣이 完全해야 하겟슴으로 三十을 壬의三으로 떼녀 黑은 본래 二十九를 壬의四로 막을때 心中으로 大計已定한지라 邊方의 自陣과 더부러 區區히 싸울것이아니라 비록 그것을 살려보드래도 그대신 中央에는 接足도하지못도록 하면서 長城을構築하려는 心算임으로 三十一을 癸의四로 빼드니 白은 三十二를 癸의三으로 따라나가겟는하면 黑의遊軍이 그치지안는限 白도 허는수업시 따라가게되는데 이 거름에 어데까지 그치려는지? (赤松子觀戰記)

●一七 戊의四
○一八 丁의五
●一九 戊의三
○二〇 庚의四
●二一 戊의五
○二二 丁의六
●二三 戊의六
○二四 乙의四
●二五 丁의七
○二六 丙의五
●二七 庚의六
○二八 辛의四
●二九 壬의四
○三〇 壬의三
●三一 癸의四
○三二 癸의三
● 死點 一 丙의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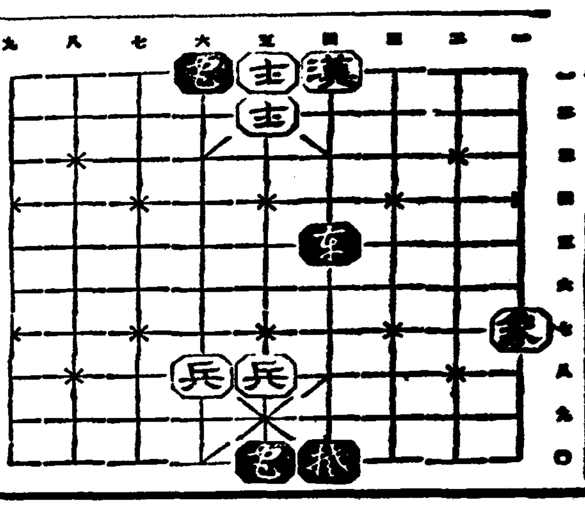


◇博譜大集 94 【昨題解答】

[illegible]

楚勝

(博譜係)



中部版

勞働하야 獻金 通津公普生美擧

【金浦】 김포군통진공립보통학교(通津公立普通學校)... 지난날 애국상애사로 방과후 학생들이 수업후 시간에 일하야 ... 수천의 헌금으로 김포군청에 보내였다고한다

貸付縮小、回收만熱中 金融梗塞去益深刻
七月부터十月까지의集計로 仁川年末商界에打擊

【仁川】 事變이후의 인천상황중 심으로한 금융에대한것은 전세 이심하다는바 지난 보도한바 와갓거니와 더욱이작금에는 가장심하야 일반상공업자에게 적지안흔打擊을주고잇다는바 이제인천금융조합에 대한 최근 이후 시월까지에 대부와회수에 대한것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부는 칠월부터 ... 감소되고 회수는 ... 증가한다 는그야말로 금융의경색을여실히 주목하야주고잇다는데 자세한수자는 다음과갓다한다

長期貸付金
七月 一三、六五〇圓
八月 一、六〇〇圓
九月 二一、四七〇圓
　　 五、四三七〇圓

短期貸付金
七月 三八、二四〇圓
八月 三四、〇一〇圓
九月 三八、八七〇圓
十月 一六、六九三圓

短期貸付回收
七月 一二、一二九圓
八月 一七、一四一圓
九月 一六、三七七圓
十月 一五、三七六圓

江倉店村間道路 高源舜氏斡旋으로竣工

【蘇萊】 부천군소래면도창리강창촌(富川郡蘇萊面道昌里江倉村)은 이십호가 거주하는 한농촌으로서 도로가업서서 운수에 자유롭지못하야 불편한중 가을이되면 일반농민들의 수확기타운반에 큰 곤난으로 지내는중이라한다 부락유지 고원순(高源舜)씨가 면당국과 주재소에 지적하야 지난일 강창점(江倉店)간도로를 준공하엿다는데 일반은그 고씨의 어룹다운 행사에 찬탄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賭博해돈일코 虛僞强盜申告

【楊州】 기부개성에사는 리석만(李錫萬)이가 양주에서 허위강도고발한사건은 양주서(楊州署)에서 인치조사한결과 양구(楊口)에서도박을하고 삼십여원을 소비하고 집에도라와서 할말이업서서 그리하얏다는데 이실을 구류의처분을바닷다한다

洪川에鑛業殷盛 稅金만二萬餘圓

【洪川】 홍천군이 우수한광산지대임은 일반사계에서 널니알니여오는바이나 근자에 잇서서 일층활기를보이여 회사를조직하야 광산사무의 처리를 하는등 무진장한광물의보고를 재출하고저 관청에이르러 출원이만흠으로 상당한면적을 점령하엿슴으로 이에 따라 세금도 거액에달하는바이며 광세에는 이만구백유십팔원 칠십구전이라한다

京城府家內工業 飛躍的으로逐年進步

경성부산업조사회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소화십이년현재의 경성부내공업(家內工業)의 생산액은 일천이백구십삼만칠천오백오십칠원이며 그종업호수는 ... 종업원은 일만일백사십이명이엿다

◀방직공업은 생산액은 팔십사만사천오백이십오원 종업호수는 오십팔호 종업원은 삼백삼십이명이며
◀금속공업(金屬工業)은 생산액 이백사십만팔천삼백이십원 종업호수는 사백삼십이호 종업원은 일천사백구십명이며
◀기계기구(機械器具)공업은 생산액 사십이만칠백구십팔원 종업호수는 이백오호 종업원은 ...
◀요업(窯業)은 생산액 ... 종업원은 ...
◀화학(化學)공업은 생산액 ...
◀인쇄(印刷)및 제본업(製本業)은 생산액 ...
◀식료품(食料品)공업은 생산액 ...
◀목제품(木製品)공업은 생산액 ...
◀기타공업은 생산액 ... 종업원수는 ... 백구명으로 나누어잇다

伊川時局巡講盛況

【伊川】 군당국의 의뢰를바다 이천군내를 순회하면서 본사이천 ... 회하에 ...

三十壯年縊死 仁川桃山町에서

【仁川】 인천「그라운드」의배후에잇는 도산정(桃山町) ... 에서 ...

蛇川市의商業不振

【蘇萊】 부천군소래면 사천시(富川郡蘇萊面蛇川市)시장은 금번 지나사변이후 불경기로 영업이 부진되여 폐업까지하는자가잇서서 ... 곤난을 ... 한다

仁川"뽀너스"打鈴 最高額은五十萬圓突破
總額은國富仁川觀測所長

【仁川】 인천부내 각관공서의 뽀너스는 십오、십륙일간에지급할모양이라는데 그총액은 이십수만원가량이라는바 국부(國富)관측소장과 인천법원 영전(永田)상석판사가 최고로서 ... 은행회사는 ... 최고로서 ... 개인(個人)상점들은 ... 각상점과 관공서의것을 총합하면 오십만원을 돌리리는바 벌서 인천은 뽀너스경기의 세모를 이루고잇다한다

甲山을根據로 阿片을密造

【仁川】 지나인과조선인이 연락을 취하야 함경남도갑산군운흥면(咸南甲山郡雲興面)의 밀림지대(密林地帶)를근거로하야 아편을밀조하야 ... 인천서에서 지난팔일부터 그 근거를 립문하고 검색한등에 마침내 일망타진하얏다 그들은 밀조한 아편을 지나방면에수출하엿슴으로 경이각지에서 이를밀매하얏슴으로 그연루자가 파다하리라는데 현품도 약오관(貫)가량 압수하얏다한다

京畿道廳의愛國日 每月十日로決定 今月부터永久히遵守

경기도에서는 사변이래 매월 ... 애국일을 설정하고 ... 매월십일로 결정하고 ... 영구히 준수키로되엿다 한다

市內財界有力者會合 產業振興策協議
府外道의兩產業調查會連絡 六大項目도調查키로

만수사변이 생긴뒤에 소화칠년에 창립된 경성부산업조사회(產業調查會)에서는 비상시국에 대처하야 산업진흥책을 강구하기위하야 ... 경성부 회의실에서 부내재계유력자와 ... 협의하엿다 다음의 여러가지사항을 협의하엿다

一、부내각직업별호구조사
二、업태별(業態別)부내 공장조사와 공장유치책(誘致策)
三、물품판매업자의조사
四、부내공산액(工產額)의조사
五、철도수송화물의조사
六、최근 오개년간의 공장비교조사

새까갑도暴騰

【楊州】 의정부 ...

白高山演奏會 少年天才提琴家 本報仁川支局後援

【仁川】 조선이 나흔 천재적음악가 백해제(白海濟)군의 파반 동경악단을 경의케하자 이어서 그의동생 백고산(白高山)군은 ... 세계적 「바요린」리스트로 그일홈을 ... 번보아 두지아니하면아니될 ... 연주회를 오는십일 ... 개최키로 되엿다는데 입장은 보통오십전 학생삼십전 독자에게는 특히반액으로 제공케되엿다 한다

農村生活실혀 妙齡女의出家

【仁川】 부천군 문학면 연수리(富川郡文鶴面延壽里) ... 의처 리중순(李仲順) ...

仁川商議役員會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

長篇小說 林巨正
碧初 洪命憙 作　熊超 金奎澤 畵

[illegible]

梗概대신에 登場人物의來歷紹介

[illegible]

八院室完備　耳鼻咽喉科專門・眼科　東光醫院　金龍錫　釜山府草梁町・電話一一三八番

科眼　京城 ○○眼科醫院

一日一杯　滋强飲料　カルピス

絹布 綿布 現金都賣　時勢絕對低廉、地方人士歡迎　京城府鍾路三丁目十番地　東順德

年末贈答品

연주창　서울　清化丸

看護婦採用　京城府鍾路二丁目五八　金東益內科醫院

藥種商되는法 提要 藥物學講義　京城 ○○町 ○○堂

地方駐在社員急募　朝報案內

外務社員招聘

女給至急募集　明治町 明治會館 出現

ウエムラ低壓ディゼル機關　低壓重油發動機　故障이업는　上村鐵工所

廣告　咸南安邊郡衛益面上沙峴里參拾貳番地 ... 昭和十二年十二月七日 契約人一同

毒掃丸

歲暮贈答品은 高山乾柿　完州郡所陽面黃雲里　東陽產業組合　(地方特約店歡迎)

本社大田支局　電八四九番

超滿員謝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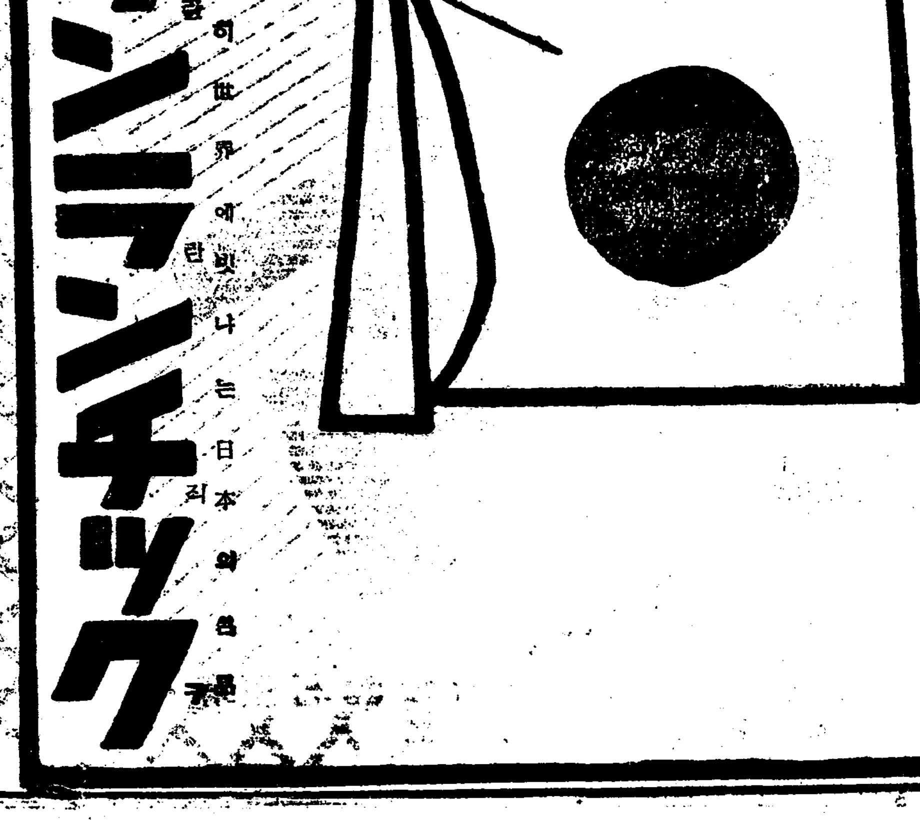
昨九日 府民館에서 開催하온『流行歌、漫談、舞踊의 밤』은 開館二十分도 못되야 立錐의餘地가업는 大盛況을 못하옵고 그때문에 夜霧를뚤코 모처럼光臨해주신 여러분에對하야 入場을謝絕치안흐면 안되게된대 對하야는 主催者側으로서 깁히 謝過하는바입니다。
昨夜에도 發表한바와가티 明春早々本開催物에 代할만한것을 開催케로決定하엿사오니 그때까지 今回發行한 招待券을 保管해주시옵기 바라옵니다。
詳細는 그때에 新聞紙上에 發表하겟나이다。
今回의 開催物에對하야 絕大한支援을 주신여러분과 出演해주신 여러분에對하야 衷心으로 感謝하는同時에 깁히 謝禮하는바입니다。
昭和十二年十二月十日
主催　日本コロムビア蓄音器株式會社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齒痛にはソレ今治水

朝光送年號　殘部僅少

戰勝의歲暮 味覺의歲暮　非常時歲暮이다 緊縮의歲暮이다 歲釀은選擇無用 家庭實用品 味の素가第一！
味の素(아지노모도)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銃後를지키는 女性의살결을 守護하라！
보드러운살결을만드는 資生堂コールドクリーム



銃後의國民經濟 ②

橫瀨鮮銀理事放送

—(續全面에서繼續)— 國家戰時統制經濟政策이 漸漸擴充되어 지는것이다 이것을 實行함에는 다만法律의力만으로는되지안는다 國民의經濟에對한 思想을 一變식히지안으면안된다 即國家全體主義、公益優先하여서는 個人의利益을制限하는主義로 하지안으면안된다。그代身 國家는國民의生活安定을 計劃할것이다。傳聞하는바에依하면 獨逸은 一方으로 國民大衆의生活安定의政策을 實行하면서 統制를强化하고잇다고한다。日本은 統制統制하야 그一方은運搬되나 各個人의生活安定、生存保障이라는方面은 아직充分치못한感이잇다 이것은 戰爭後出征軍人의 其後의生活保障問題와 關聯하야 急히着手되어야할 問題인줄로안다。

×

다음으로 法令其他官廳의指導는 實하면 經濟設計圖와가튼것이다。官廳은 設計圖를作成하고 또設計와가티 完成할與否를監督하며 이것을 實行하는것은 民間이다。銀行其他財界人은 請負人이며 建築技師이며、勞働者이며、材料供給者이다。設計圖를作成하는者는 多數이오請負人이少數이라하면 圓滑히進行되지아니한다。가령輸入品이나 軍用品은 될수잇는대로 節約하지안흐면안된다 하나 그러면 어떤것이 輸入品이며、軍用品이지는 詳細치못하나『까솔린』은 輸入品인 同時에 一面 意味로 小要한것은 輸入品이니『께도』代用으로『우동』을 要하는것은 不可하다고할것이아닌가 普通에는不緊한것이나 工場의 擴張은 不必要하지만 그것은 戰時突變할때에는 一面가不可缺하니 軍需品中 第一必要한것이라고 하겟다 標準은 衛生에害가잇다고 하겟스나『가찌도끼』라고 北支兵士에게 正月餠品으로보내는 어것도 軍用品인가 생각된다。

結局 今日의 經濟는 一個의 定義가튼것으로는 判明되지아니한다 그러함으로 民間에 根本的統制思想을 諒解하고 自進하야 行하라는 心情을 가지지아니하면안된다。

그러나 民間의 自由經濟思想은 一朝一夕에 變更될수업다 現今行하고잇는것은 民間의 事業에는 相當한 利益을賦與하면서 軍需品을 急速히製作할일이다 即 資本主義와 妥協한 統制事業이다 이것은斷然으로 官民이 서로 接近되어야 理想에 接近할줄로 안다 世界大戰當時에는 各國이모다經濟統制力이 너머 强치못한모양이엿다 여러가지 記錄되어잇스나 米國에서는『戰爭으로생긴 犧牲者가업고 國家의形狀을目睹하지아니하면안된다』라고하엿고 勞働의勞働者가『奉仕의 名目下에 資本家의利益만을 增加하는것은 不合理하다』고하엿고 或은『軍需産業家에게 高率의 利益을許與하는것 其他戰時利得의 徵發한것은 多數國民의 擧國一致를 害한다』고論하엿다 卽歐米各國에서는 戰時統制가 其實을 得치못하얏는것이다 歐洲大戰當時의 實例가여러가지로 說明되어잇서 日本도次次그러케되지나 아니하나 하고잇는 人士도 잇스나 經濟事情의 變化와 日本의 國情으로보아서 반다시 그러케는안될줄로생각된다

(가) 當時는 銀行取引所等은 閉鎖되엿섯스나 今日은그러치아니하다 그것은 通貨가金本位로부터 管理通貨로變한까닭이다 銀行에 預金하는것이나 紙幣로 所持하는것이나 同一하다 日本의經濟가 統制되어잇는까닭이다

(나) 食物의 票制度가는 것은 行하지안는다 日本은生活資料가 自給할수잇는까닭이다 獨逸이나 英國이나 食物은 半分밧게 本國에서 生産치못한다고한다

(다) 我國民은 日本經濟의 實力을 過度히 悲觀하는 傾向이잇다 『日本은 天然資源이 缺乏하다』고 人皆謂之하나 何國을 勿論하고 一切의 物資를自給하는수는 絶對不能하다 이것은 程度問題이다 가령世界列國中富裕하다는 國家의代表되는 英米를 들지라도 英國의 一年間輸入額이 食料品三十四億圓內外 十三億圓 纖維物類十一億圓 羊毛七億圓等이오 米國은 木材八億圓 고무五億圓 砂糖五億圓等을 輸入하고잇다 此等에對하야 日本을比較하면 昭和十年中輸入額이 小麥三千三百萬圓 豆類八千二百萬圓 原油及重油一億二千九百萬圓 棉花八億五千萬圓 羊毛二億萬圓 鐵鑛及其他鑛一億九千萬圓이잇슬뿐이다 어것에다가 滿洲와 北支를加하야『[illegible]』經濟도 考慮되며 또石油其他必要品은 買取貯藏할수도 엇는것이다

(라) 支那의排日宣傳의 一條目으로 日本의財政經濟의 薄弱性을 指摘하나 그것은 日本自身이 新聞雜誌에或은 誇張한 說로 不安한것가티 云謂한까닭이다

食料의大部分을 滿洲한植民地나 其他로부터 買入하는英本國에서는 一朝有事時에는 即時로食糧缺乏之어렵 [illegible] 時로는 [illegible] 海軍과 空軍의大擴張을하지잇다하나 도리어 [illegible] 안이다。

×

三、[illegible]는 [illegible]的으로 統制할[illegible]노안다 그目標는 國防의充實은勿論이나 支那問題에 英國과[illegible]의 關係가一時的이라도 解決되면 우선國民生活의安定을爲한 統制經濟가 施行될줄로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에[illegible]用意가잇서야겟다 國民生活安定의 內容은 個人이健康하여야할것 그精神狀態가 爽快하여야할것이다 이以上은 各人의信仰이던지 人生觀으로 定할것이다 어며 社會保險案이 出現되며 結核豫防의 法律이 考慮되며 健康保險法이 成案되다하는것은 모두時代風潮를 提示하는것으로 맷는바이다。

戰時의肥料統制

大會社로부터 地方小賣業까지 監督命令이미친다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은 別項과가티 發布를 보앗는데 그運用은施行規則의 發布와 大肥料業者와의 協定、中小業者의 實際指導監督又는 取締에依하야 施行될것인데 于先配給統制의 對象은硫安肥料에 限定되어잇고 그取扱業者는 朝窒日滿商事三井、住友等이 主體로될터로 全般的配給에 잇서서此等의 大會社가總督府와의 協定에依하야 所期의 目的을 達케하려는것이다 그러나 法令에보이는바와가티 販賣肥料業者라는것은 어떤詳細한 規定이업서 大會社로보터 地方의小賣商에까지 監督命令이밋게되여잇슴으로 地方의 小賣商에게도 當然히 本法令의 制裁를밧게되는데 어떠든 來十五日의 各道肥料關係官會議를지나 各道에서 適宜히 處理케될모양이다

肥料配給圓滑과 價格公正을企圖

農村安定、農業生産確保코저

朝鮮臨時肥料配給 統制令公布

穗積殖産局長談

本日制令第十八號로서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이 公布되여近日中에 施行케되엿슴에 對하여서 新聞 同令制定의 趣旨及其內容에 關하야 말해두고저한다 肥料의配給圓滑과 價格의公正은 農村經濟上에 如何히 重大한關係를 가진것이가는 다시금말할것도업다 特히 近來販賣肥料의 需要는 逐年增加하야就中硫安、石灰窒素及 過燐酸石灰의 三種化學肥料의消費高는 尨大한數量을 보이어 其市價의高低는 全販賣肥料의 市價를 左右하고 其農村에 及하는 影響은 頗大한것이잇다 因하야 化學肥料工業의 合理的인 改善發達을 期하야 農業經營의 進展에 資하기爲하야 本年三月부터 朝鮮重要肥料業統制令을 實施하야朝鮮內에서의肥料의 需給의 圓滑과價格의公正을 圖하여왓다 今次支那事變의勃發에遭遇하여 現下의情勢는貿易關係 船運의不足其他에 基因하는 肥料의供給의不圓滑、市價昂騰等의 虞慮를多分히 包藏하고잇는것으로 認定되고또 今後時局의 進展又는擴大에伴하는 肥料事情의 推移는豫斷을 許하지안는것이잇다 따라서 此事態에 對應하야 臨機應變하야 適宜의措置를 講究할수잇는 準備를 가추어써 肥料配給의 圓滑과價格의 公正과를 圖하야 農村의 安定及農業生産의確保上萬一의 遺憾이 업기를 期하여야할必要는 實로緊切한것이잇다。

如上의 情勢에對處하기 爲하야 內地에잇서서는 業者臨時肥料配給統制法이 公布되여 去月二十五日부터 其實施를 보앗스나朝鮮에 잇서서도 事態는 應急立法의 制定을要함이 切實하고且配給統制의完璧을 期함에는 內鮮同一의 步調를 取할것이 必要함으로 이에 非常時肥料對策의 徹底를 期하기爲하야 本令이 制定된것이다

販賣價格監督取締 地方的配給配定

化學肥料가主된取締對象

本令의內容은 大體內地의 臨時肥料配給統制法과 同樣이나 다만 內地法의 第一條는 現在朝鮮의實情으로보아 當場規定할必要가업다고 認定되여 此를除하고 全文六個條의 極히簡單한法令이된것으로 結局 第一條가骨子로되여잇다 即同條에 依하면 必要에應하야 肥料의販賣、使用消費、移動及輸出入에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잇슴으로 事態의 推移如何에 依하야 隨時適當한 措置를 講究할수잇게되엿다 그러고 同條에 基한 命令의 主된것으로는 販賣價格의 監督取締、地方的配給配定等이豫想되는것이다。

또 本令의 運用上 特히 一言하고시픈點으로서는 第一에 本令의 適用을 受하는 肥料에 對해서는 何等의 制限업고 따라서 모든 種類의 肥料에 及할수잇는것인데 現狀에 잇서서는 主로當場販賣肥料中 化學肥料가 主되는 取締의 對象으로 생각되고잇다 다음에 現行의 朝鮮重要肥料業統制令은 重要肥料의製造業者를 對象으로서 肥料需給의圓滑及價格의公正을 圖하는 것인데 本令은 主로서 配給業者를 統制하야 所期의 目的을 達하려하는것이니 同一하나 統制의 主되는 對象은 스스로 相異하야 本令의適用을 受하는 者는極히廣範圍에 互한다 最後에 結局本令은 現下의 非常時局에 處하는 臨時立法으로 特히關係當業者의協力을期待하는바이다 따라서其運用에 當하여서도 現在의 配給組織에 顯著한 變革等을 주지안코 于先 當業者의 自治的統制에 依하야 配給의 圓滑과 價格의 公正을期하려고생각하고잇다。

全文六條

第一條 朝鮮總督은 支那事變에 關聯하야 肥料需給의 圓滑及價格의公正을圖하기爲하야 特히必要하다고認할時는 肥料의 販賣、使用、消費、移動又는輸出入에關하야 必要한命令을 할수잇슴

第二條 朝鮮總督又는道知事가必要잇다고認할時는 肥料의製造取引、保管又는運送을 業으로하는者에對하여 前條의命令에關係잇는事項에對하여 報告를徵하고 又는當該官吏로하여금帳簿類其他의物件을 檢査식힐수잇슴 前項의境遇에잇서서는 當該官吏는 其身分을 證明할 證票를携帶함이라

第三條 第一條의規定에依한命令에違反한者는 五千圓以下의罰金에處함

第四條 第二條의規定에違反하야 報告를하지안코또는 虛僞의報告를하고 又는 檢査를拒否妨害또는 忌避한者는 五百圓以下의罰金에處함

第五條 肥料製造業者其他肥料에關한業을하는者는 其代理人戶主家族、雇人其他의 從業者가 其業務에關하야 本令又는本令에 基하여하는命令에 違反한時는 自己의指揮에서 된것이아니라는理由로써 其處罰을免할수업슴

第六條 本令의罰則은 其者가法人일時는理事、取締役其他의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役員에 未成年者又는 禁治産者일時는其法定代理人에 此를適用함但營業에關하야 成年者와 同一한能力을가진 未成年者에對하여서는 此限에不在함

附則

本令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暑定함

本令은 支那事變終了後一年內에此를 廢止할것으로함

中央酒造會社設立

群山燒酎業者合同

京城稅務監督局管內 京畿、忠南北、江原四道의 群小燒酎業者는 亂賣에依한 倒産을念慮하고 合同計畫을 進하는中 稅務監督局의 斡旋에依하야 議論이成立되어 中央酒造株式會社(資本金四十八萬圓全額拂込)를 創立키로되어 二十一日創立總會를 開催키로되엇다 右合同會社는 新式燒酎를 醸造할것으로 新設備의工場을 各地에建設하리라한다

十一月國際商品

十月의 紐育株式暴落 以來米國商工界는 依然低調에 支配되고 特히 金物及고무는 어에 影響되는바가만타 英國及米國의 商品價格指數를 過去에比하건대 英國은이렇社調査數字는 最近一九三五年三月以來의 最低를 告하고 米國무데社調査는 一九三六年七月以來의 最低가되어잇다

고무 十月中의 米國고무消費高는 三萬八千七百七十噸으로 昨年一月以來의 最少記錄을告하야 마침내 廿日倫敦고무市場은 轉落하야 國際고무統制委員會에서 明年第一四半期의 輸出配定率減少를要望하지게되엇다 卅日倫敦에 開催된 國際고무統制委員會는이 要望에 應하야 明年第一四半期의 고무輸出配定率을 現行基準配定인 九〇%로부터 七〇%로 一擧에 二〇%를縮減키로 決定하야 고무 市場에 好感되엿다

金物錫 市況은 十月末國際錫委員會가 明年第一四半期의 輸出配定을 現行의 一一〇퍼센트로부터 八五퍼센트로 引下한다는旨를 內定한것도 無影響으로 十一月初 二百磅大關門을 無難히 깨엿는데 어도昨年十月以來의 現象이다

鐵鋼 鐵鋼協會調査의 製鋼作業率은 十一月二十九日에給作되는 一週間에잇서서 드듸여 全能力의 겨우二九、六퍼센트와 一九三四年十二月以來의 最低記錄을 또 유·에스·스틸會社의 鋼材引渡高를 例로 取하드라도 十月引渡高는 七十九萬二千噸으로 一九三五年三月의 最低記錄이되엿다

棉花 十一月八日發表한 米國務省新棉收穫豫想은 一千八百二十四萬三千俵로 過去의 最高記錄 一九二六年度의 實收高一千七百九十七萬七千俵를 上廻하기二十六萬六千俵로 實로米棉史上未曾有의豐作을 報하엿다 그러나 公報發表以前에 一大豐作을報할것이라고 여미 惡人氣에서엿든市場은 이發表에도 意外로平靜한 推移를보여 棉花關係業者의 關心은 十五日부터開會된 臨時議會의 新農業法案의 推移如何에 集中되어잇다 棉花消費者인 紡業의米國의近狀은 極히不振狀況로 綿製品市勢는『損失點』에 低落되고 紡績會社의操業率은 今春의好況時의七割가량에 低落되엿다 어에反하야 米國以外의諸國에서는 操業率은比率的高度를 維持하고 特히印度紡績은 綿絲布輸出에 激增되엇기때문에 高度의操業을行하야 그것때문에 米國市場에서의 棉花買付增大가 注目되고잇다

生絲 米國의生絲市場은 市況이閑散하고 市勢는軟弱을呈하야 今年의 低價로 떠러젓다 人絹絲의引渡도 極히不振하야 最近의 引渡高는 生産의 겨우十五%에 不過하고 現在는생사不況의 米國人絹引渡指數도 一九三五年四月以來의 最低記錄이엿다 여에反하야 英國의 十月中의 人絹生産高는 昨年十月보다만코 比較的高水準을 維持하고잇다

小麥 市場의 前月末의軟調는 十一月上旬도 繼續되어市俄古小麥市場은六日今季의最低點에轉落하얏다 其後政府가市勢를 安定케하기爲하야 一般市場으로부터『라이』麥을買上하게다고 聲明하얏기때문에 穀物市場의 實壓迫은 緩和되고 市況이安定되엿다 十一月中에發表된重要小麥生産國의 收穫公報를彙報하면 加奈陀는一億八千二百萬噸으로 前年度에比하야四千六百萬噸의 減少이나마『오스트라리아』는一億六千三百萬噸의增收『알젠칭』은 豫想作付反別은 一千八百五十萬七千三百四十一萬三千噸에一카는前年度에比하야 百四十一萬二千噸에一카의 增加로 訂正發表되엿다 米國農務省發表의 世界小麥生産高는 三十六億八千萬[illegible]을 除한 百五十萬석이엿다

砂糖 米國市場은 月末에强調를示하얏스나 倫敦市場은 漸落傾向을不收하얏다

國際商品價格指數

	一九二九年平均을 基準一〇〇으로함		
	十月末	十一月末	十一月末
棉花(紐育)	五三	四一	三一
生絲(同)	三〇	[illegible]	[illegible]
小麥(市俄古)	七七	七二	六五
砂糖(倫敦)	五三	五八	五六
고무(同)	六八	六〇	四二
銅(同)	二七	五七	五四
錫(同)	一一四	一〇二	九〇
鉛(同)	七八	六〇	五〇
亞鉛(同)	七九	[illegible]	[illegible]

備考 小麥及砂糖은 定期十二月 其他는모두現物

上旬對外貿易

出超百二十萬九千圓

【東京商通電話】大藏省發表=十二月上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 如左하다

輸出 七千七百八十九萬圓
輸入 七千六百六十四萬一千圓

今日의市勢 【十日】

株式 一息이나 底强

前場 一息 昨後場의 最高値로 [illegible]

再次一息

後場往來 後場은 다시硬化東新百七十九圓八、鐘新二百九十二圓四에 寄付한後다시 一段高를 보엿스나 다시反彈로往來步調이엿다

昨後場 다시新高値에로 奔進한後東京止의 鐘紡과 今朝의外電低、政府의 長期戰聲明發表等으로 今朝의 買方의 利喰이急하게되어 氣配는軟化하야 寄付低가되고 이어서 商勢는 一息狀을 呈하게되엿는데 政府의聲明에 支那가反省치안는限 第二段三段의 長期戰도 不辭한다고 는하엿스나 여는支那側이 和議

市場

(株)……疾風的飛勢로 東新이 一氣 今春天井을 突破하고고 後로 伊紛爭當時의 天井白七十八圓을 上廻한市勢도 오늘은 一息裡에 暴落이잔잔▲ 常識的判斷으로는 高價警戒로 老練側에서는 目前天井을 云謂하는 押目待買를 勸獎하나 ▲一息後急騰 一押後上放으로 大衆에 買機會를 주지안는것이 今回의 市勢로 아직은 確斷을 내리는 商早▲政府聲明도 거의 無響으로 投物은 몰내야업서 强人氣를 如實證明▲南京陷落後의情勢를 기다리자는 主意▲ 아직도大勢는 依然不變이므로 假令 此邊一押이 엿다면 絶好의買場? (金潮城)

(米)……阪地市場은 立會冒頭軟化한後 三十五圓丁까지 昂騰하엿다가 今朝四圓七十錢臺로 反落 大體步調로는 伸悩狀態▲그러나 正米의實勢가 絶對低落을 許容지아니하니 渴算의瓦落은 亦期待難▲將來로는 公定米價의 決定如何▲家計米價는 目標하다할지라도 어느程度까지의 引上될거슨事實이나 公定價의 引上은 旣히行動一巡의感이不無▲여제는 來客網羅의 一擧이 버려지는모양인데 期場은 또 어떠현態度를取할모양? (鬱田)

中央酒造會社設立 (續)

依然大勢樂觀

十日正午를期限으로는敵의降服을 勸告하야 南京의運命은 이數日中에 決定되게되엿다。伊太利는聯盟을 脫退하야 獨逸과 提携하고 英米佛에 다시한번 日本에一버 어 다시外交的立場은 日本이一步有利 展開될것이며 蔣介石下野與否에對해서는 諸說이紛紛하나 如何든南京陷落이民心에興할 影響을 생각하면 그以後에는 蔣介石이前과가티 支那民衆에徹底한 抵抗하야 與否 이러한 蔣介石下野로 向하는이 [illegible] 바이고도 또는 新政權으로서 [illegible] 支那가 長期抵抗論에 對해서는 足히 [illegible] 期待할 [illegible] 이업다는 樂觀論도 잇스며 새로運生하는 北支新政權에對한 期待는 想像以上으로 큰것만큼 買方의 欲望과 熱은 容易히 冷却지 안흘것이므로 假令 此邊에서 一押이된다 처드라도 結局은 買人氣를 抑壓할 新情勢는 아니다。伊太利의 聯盟脫退는 그일까 뒤에 [illegible] 알려 英米와의 關係에도 [illegible] 는 되나 오히려 今後로 [illegible] 하고잇는것이다 [illegible]

後場同調

後場은 三十三圓〇四錢으로 六丁高에 寄付한後 二節〇四錢三節〇六錢으로 四節九十八錢 五節九十二錢에 少弱하엿다

怒濤狂瀾一息

惡戰苦闘하다못하야 結局은 買方의 策戰으로 立會停止를 보게된當局市場은 昨日午前十一時부터 立會를 시작하엿스나 立會停止前에 市場을 混亂케한 中限三十三圓五十錢의 賣玉處分은 局有에歸하고 結局當限은 三十五圓二十四錢까지 昂騰하고 中限은四圓九十八錢 先限은三十五圓丁으로 反騰하엿다가 今朝三十丁內外의 反落으로 因而靜息狀態에歸하야 一時怒濤狂瀾도 終焉의感이업지아니하다 果然阪地의三十二圓二十五錢의 高價와 當地의三十三圓二十五錢의 高價가 當分天井形成의 觀도업지아니하나原動力을 가진正米가 三十二圓五十錢까지 昂騰하야 容易히 低落을不許하는 光景이오 또低落을 許하려야 持米側의 賣惜으로 如意치못한 그點으로 보아서 酒精算의 單獨低落만을 期待할수업는狀態이다

新公定價注目

新公定米價는 決定하게되는 來十六、七日頃의 米穀統制委員會는 어떠한決定으로 米界의波瀾을 捲起할지 一般의注目을끌고잇는데 米穀統制法에 依하야는 物價參酌値를 基準으로하야 大正에 此를決定하게되는거시다 此에만 重要를置하게되면 今年과如히 物價가昂騰하야 物價參酌値가 三十三圓六十七錢에 該當한 今日이면 參酌値의上値二割을 取한다 하더라도 四十圓四十錢이나되거 高米價抑壓政策을加하고엿는데 現府로서 參酌價에 依하야 決定하지 안흘것은 明若觀火일것이어서 結局生産者와 消費者의立場을 考慮하야 家計米價의 一本鍵으로決定하지안흘가한

國債 遊資側買 續進

【東京同盟】金融情勢의 順調로 그리 發行은 年內의新規公債를 完了하야 遊資側買一巡하야 物價는 市場의 影響에서 蟄伏하여 市場의 買物이 눈에띄어 內地債는 申號以下가 五錢乃至十錢續進하엿다

▲甲號五分〇、△▲第三、五分二〇三、△▲一回四分〇三、△▲二回四分〇一、△▲二十八年物八〇三、△▲佛貨四分〇八、△米五分七四〇、九〇

米期 高價採合

前場採合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八十錢인 昨比同樣의 報를 受하고 當限三十一圓八十四錢인 十五丁低로 中限은三十一圓八十一錢인 昨比同樣 先限은三十一圓

正米 區區이나 堅强

京城續高 定期高로 市價는 賣買는 雙方의 消極的인現狀이다 ⓐ三等 三二、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三〇、二〇

仁川續騰 日本內地 入注이 旺盛이나 奧地頑强으로出廻는 依然運搬되지안흐며 一方買上納入手當側도 買付도 아직못나지아니한때라 賣方은 先高豫想으로 態度强硬하야期間 接近의買漁로 市價十錢續騰을演하엿다 ⓐ 穀良 三等 三二、二五 四等三二、二〇 銀坊主三二、四〇 四等 三二、一〇 多摩錦 三等 三二、九〇 四等 三一、〇 ⓐ 一等白米 四一、一〇

釜山急落 繼續하야 產地 强硬을 報하나 朝米定期의 一般齊急落과 地買氣薄으로 取引은 不振이 ○ 買意略하야 買過와相俟하야 三十錢低로 反落을 演하엿다 ⓐ 穀良三等三二、一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 一三、一五

大邱保合 期近의 希望價로 先高期待에依해 持米側의 依然하게 不賣는 蠶 麟錢는 下落現狀이 다 ⓐ 穀良 三等 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二、九五

群山堅調 賣米는 二十四、 錢에 잇섯스나 모다 入庫되고 市中에 나오지안코 政府買上大 納이 漸進으로 奧地는依然高 하야 目前의高價期待로 賣物이 업서 市場은 各地滿掃의高價反 騰을 보아도 人氣强硬하야 氣配 堅硬 前價로부터 五錢上騰하엿 다 ⓐ三等 三二、九五 四等三 二、七五 一等白米 一三、三〇

木浦一息 各地期米는 過高反動低이나 奧地는 一段高價期待로 賣惜하야 市中賣物이적고 地場도 年內高價豫想으로小 口의 浮動米를 除하고는 賣物 이되지안허 市價는 前價同樣으 로 步堅推移이엇다 ⓐ三等三 三、○ 四等 三三、一〇 一等白 米一三、一五

朝取代行代引激增

株式市場活況으로 九日의 朝取代行會社의 代引은 新東四千二百株、新滿二千七百三十株로 未曾有의 代引을 示하고 代引殘高는 一擧百萬圓을 增加하야 二百五十萬圓이되엿다 同社創立以來의 新記錄이다

今日財界 十日

◆米	(單位拾錢)	
仁川期米先限	三·九五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三四·八	三四·三
仁川三等米一石	三二·〇	三〇
京城一等白米百斤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叺 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 神戶現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拾錢)	
京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九日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阪神鑛粕 ◆阪神鑛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阪金利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對支那 百圓에 [illegible] 對英一圓에 一志二片 [illegible] 對米百圓에 二九弗一六分一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 ◆朝取短期實買高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十日)

▲白米 ▲雜穀 ▲燃料 ▲京城鐵道局 ▲紙物 ▲肥料 ▲砂糖 ▲洋灰 ▲染料 ▲海產物 ▲木材 ▲毛織 ▲人絹 ▲毛布 ▲牛皮 [illegible]

株式 朝取期米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福 吉村取引店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水鉛 重石 滿俺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